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2 vol.84

front
STORY

미식의 경제학,
백화점은 왜
식품관에 몰두할까



FENDI

SUBLIMAGE LA CRÈME YEUX

새로운 차원의 아이 크림, 고귀한 눈가의 힘을 담다

신제품 수블리마지 라 크림 아이의 핵심인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열매와 꽃은 함께 블렌딩되어 그 희귀함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로 눈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탁월한 글로벌 안티에이징 효과와 함께 피부는 젊음의 생명력과 탄력을 되찾고 빛나는 매끄러움을 간직합니다. 한층 더 아름다워진 눈가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CHANEL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



SEOUL FLAGSHIP 02 545 8200 MYEONG-DONG 02 753 6915
LOTTE HYUNDAI SHINSEGAE GALLERIA AK PLAZA DEBEC SAY

RALPHLAUREN.COM

PORTO

RALPH

LAUREN



CHLOE BOUTIQUES
MUE 02 3446 8974
AVENUE 02 774 9593
HYUNDAI MAIN 02 518 3012
HYUNDAI COEX 02 3467 8929
HYUNDAI MOKDONG 02 2163 1236
SHINSEGAE MAIN 02 310 1633
SHINSEGAE GANGNAM 02 3479 1781
SHINSEGAE CENTUM CITY 051 745 2416
GALLERIA LUXURY HALL EAST 02 543 1737
WWW.CHLOE.COM





Chloé



58

20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전해온 장인의 손길이 담긴 펜디의 2012년 F/W 광고 비주얼이다. 화려한 민크, 폭스가 믹스된 퍼 컬렉션과 더불어 이번 시즌 선보이는 투 주르(2 Jours) 핸드백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영감을 받아 활동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2056-9023



44



12

- 18 **마식의 경제학, 백화점은 왜 식품관에 몰두할까** '푸드 콤플렉스'가 각광을 받으며, 국내 백화점들의 프리미엄 식품관 경쟁이 흥미롭다.
- 20 **ETERNAL STORY** 올해 특히 눈길을 끈 의미 있는 사계들.
- 22 **BE A GENTLEMAN** 브랜드별 클래식 워치 컬렉션.
- 24 **AGE OF SIGNATURE** 브랜드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이콘 주얼리.
- 26 **SLEEK WALKER**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구두 컬렉션.
- 28 **AFTER A WORKOUT** 남성들의 피트니스 클럽 파우치 속 아이템.
- 30 **WAIST WATCHERS** 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좋은 소재의 벨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스타일에 멋을 더해줄 남성 벨트 컬렉션.
- 32 **PIN UP!** 수트에는 넥타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옮겨올 남성복 트렌드를 지배한 부트니에 연출법을 눈여겨볼 것.
- 34 **ENCHANTED HOUSE** 고급스러운 향과 아름다운 보틀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줄 홈 프레그런스.
- 36 **FALL'S FINEST** 지금은 맑고 깨끗한 안색으로 되돌리는 미백 에센스로 가을 화이트닝에 몰입해야 할 때다.
- 38 **BEST HAIR SECRET** 머리술이나 모발 굵기에 따라 남성들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이 달라져야 한다.
- 40 **SMART LUXURY** 힐튼 월드와이드의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인 콘래드 호텔이 금융허브인 여의도의 중심에 화려하게 등지를 들었다.
- 41 **발렌타인 17년, 새로운 스타일을 압다**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 리 에디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 42 **BRILLIANT DAYS** 연말 옷차림에 눈부신 빛을 더해줄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마스 주얼리 컬렉션을 주목할 것.
- 43 **BEIGE ATMOSPHERE**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을 위한 브랜드 르 베이지가 한남동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 44 **AUTUMN SONATA** 지금 막 빛에서 깨어난 듯 섬세하고 눈부신 여배우 조여정의 아름다운 얼굴이 하이 주얼리 판타지와 만났다.
- 52 **POWERFUL MOISTURE PACT** 촉촉한 파우더 팩트와 파운데이션이 잘살한 시기, 베네피트의 헬로 플로리스를 추천한다.
- 53 **BALANCING CARE** '아모레퍼미픽 ABC 세럼'과 함께 고귀한 자작나무 수액이 전하는 힐링 에너지를 느껴볼 것.
- 54 **STYLE OUTSIDE, HERITAGE INSIDE** 브리티시 트레디셔널 골프웨어 브랜드, 빈폴 골프가 개최한 특별한 라운드 현장.
- 55 **BEAUTIFUL INFLUENCES** 도회적인 세련미와 모던한 감각으로 사랑받는 마이클 코어스가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 56 **FLIGHT HYPER** 해밀턴이 새로운 항공 워치, 파일럿 파이오니어 크로노 쿼츠를 선보인다. **ALL ABOUT WOMEN** 상하이의 에르메스 2012-13 F/W 여성복 컬렉션과 액세서리 전시회. **SPARKLING ENCOUNTER** 최고의 크리스탈을 생산하는 스와로브스키 엘리먼트와 슈즈 디자이너의 만남.
- 58 **ART PLAYGROUND PROJECT** 덴마크의 놀이터 프로젝트.
- 60 **ENJOY, SMART OUTLET SHOPPING!** 대표적인 도시, 파리, 마드리드, 런던 근교의 시크 아웃렛에 관한 매력적인 정보 파일.

Style 조선일보

Issue.84 november 201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韓

雪花秀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미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여민에센스

Sulwhasoo



내 피부 단단히 여며져 있을까?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Jewel TIMELESS TREASURE

과거로의 영감, 주얼리
세계의 영원한 모티브,
빈티지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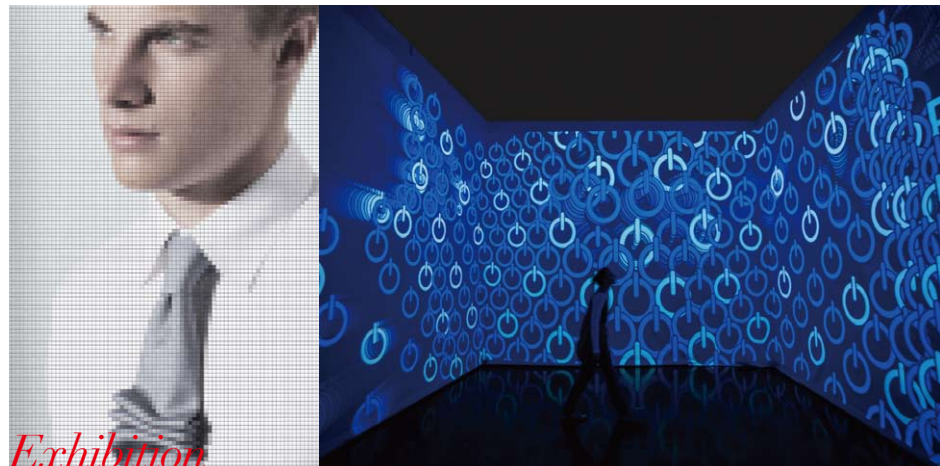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 빅토리아 무드가 느껴지는 스타 컬렉션 링 1천5백만원대 **에이치 스티븐**, 고대의 코인을 세팅한 모네페 컬렉션 네크리스 2천만원대 **볼가리**, 1957년에 제작한 새 모양의 트래디션 클립 브로치 4천1백만원대 **까르띠에**, 뱀 표피의 비늘을 표현한 세팅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부쉐론**, 빈티지한 코냑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타 컬렉션 링 6백만원대 **에이치 스티븐**, 안티크 코인을 매치한 모네페 링 3백만원대 **볼가리**, 스모키 원석을 볼드하게 세팅한 그리프 링 3백만원대 **오메가**, 나비가 않은 듯 섬세한 소와니에 링 5백80만원대 **타사키**, 새롭게 선보이는 빈티지한 디자인의 인텐트 컬렉션 펜던트 3천5백만원대, 이어링 3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에디터 **배미진**



Design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들의 작품 세계, B&B 이탈리아 가구와 리문 조명

살아 있는 디자인의 전설로 여겨지는 이탈리아 출신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국내에서 보다 친근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인 안토니오 차테리오와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탈리아 컨템퍼러리 가구 브랜드인 B&B 이탈리아의 한국 공식 파트너인 인피니(Infini)는 지난 10월 중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을 서울 창당동에 열고, 차테리오는 직접 초정해 폭넓은 스펙트럼의 가구 컬렉션을 소개했다.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 한층 더 근사해진 인피니의 창당동 매장은 3개 층에 걸쳐 1000㎡의 공간을 B&B 이탈리아의 소품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2층에서는 차테리오는 주도하는 '막살토(Maxalto) 라인'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의 목재 가공 방식을 고수하는 정교한 수공예 기술과 선진 산업 시스템을 아우러지는, 클래식과 모던의 감성 조화가 돋보이는 컬렉션이다. 알레시의 외인 띠개 '안나 G'로 유명한 멘디니는 라문(Ramun)이란 조명 브랜드의 중심 어린 감성이 느껴지는 제품 '아몰레또'로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멘디니가 손지에 대한 사랑을 담아 디자인했다는 이 귀여운 원형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수호물'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어린이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작동성과 내구성을 구현하는 관절 구조로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라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리문의 1호 매장이 문을 열었다. 문의 인피니 02-3447-6000, Ramun Korea 1600-1547 에디터 **고성연**

홍영민 매거진 포토



Exhibition 디지털 감성의 타이 애니메이션 '8 Ties'

우아한 풍격이 돋보이는 에르메스의 디자인에 디지털 감성을 가미한 '실크 넥타이의 미학'을 색다른 방식으로 선보여 주목된다. 디지털 아트와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인한 8개의 타이 디자인을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8 ties' 전시다. 벨기에,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1층 에르메스 매장 앞 전시 공간에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에르메스의 도통한 실크 소재 타이 라인인 해비 트윌(Heavy Twill)에 USB, 온오프(ON & OFF), 전기화로, 키보드 기호 등 디지털 문화의 특징적 패턴을 접목시킨 슈발리에의 'H8' 타이 컬렉션이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벽면 프로젝션 버전으로 소개되는 흥미로운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이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작곡가 아코보 비보니 실링지의 음악과 더불어 USB, 키보드 등 타이 패턴의 바이너리(2진법) 그래픽이 활성화되는 장면이 이 작품의 묘미로 꼽힌다. 멕시코 태생(1959년생)으로 1985년부터 파리를 주무대로 활약해온 슈발리에에는 컴퓨터를 주된 작업 매체로 이용하면서 비주얼 아트와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인지를 다져온 작가이다. 입장은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ashion OVERSIZE ME

올겨울에 아우터를 구입할 작정이라면 코트든 패딩 점퍼든 자신의 사이즈보다 한두 치수는 크게 선택할 것. 지금은 바이츠로 오버사이즈로 입어야 품 나는 시대다. 동시대 멋쟁이 여성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얻는 셀린을 비롯해 발렌시아가, 끌로에, 날 버렛 등이 오버사이즈 인기를 주도한 대표 디자이너.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거대한 실루엣이라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팁만 기억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오버사이즈 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오버사이즈라고 해서 큰 옷이다 멋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다. 몸을 타고 흐르는 맞춤 코트만큼 완벽한 테일러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몸판과 팔 라인을 동그스름하게 감싸는 벌룬형 스타일이나 마르자엘라처럼 매니시한 느낌이 묻어나는 일자형 라인이 고급스럽고, 소재 역시 험없이 늘어지는 느낌보다는 모직처럼 두툼하고 뽀뽀해야 구조적인 라인이 탄생한다. 거대한 아우터에는 하의는 최대한 슬림하게 입어 룩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하지만 프로포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이번 시즌 셀린과 프로엔자 슐라에서 선보인 것처럼 넉넉한 크롭트 팬츠나 신발을 덮을 만큼 긴 와이드 팬츠를 선택해도 좋다. 단, 앞코가 뽀뽀하거나 이질한 높이의 하이힐로 땅딸막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넓은 라펠이나 목을 감싸는 하이네 크리언의 디자인은 볼륨감을 극대화하기에 더없이 좋다. 가장 선택도 중요하네, 어깨가 한 뼘 이상 내려온 오버사이즈 코트에는 솔더백이나 크로스 백은 어울리지 않는다. 손바닥만 한 클러치 백 역시 몸집이 더욱 비대해 보일 수 있으니 큼직한 클러치 백을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감싸는 애티튜드를 더해야 '쿨하다. 에디터 **이예진**



Art 박정환 작가의 <Timeline>展, 최재은 작가의 <오래된詩>展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소재인 한지를 바탕으로 한 색채의 미학에 몰두해온 박정환 작가의 전시회 (타임라인(Timeline))이 11월 18일까지 서울 반포동 153갤러리에서 열린다.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출신인 박정환 작가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2년여 전 귀국해 동양적인 매력에 돋보이는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색 지체를 작업의 주요소로 꼽는 그는 "이전 작업에선 한 가지 색이 수십 번 중 복돼 채색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깊은 색감이 나타났다면, 최근 작품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색깔 자체의 대립과 융합 속에서 마치 합창과도 같은 하나의 화음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관심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밝힌 박정환 작가는 "내 작업에서 스트라이프 양식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색채와 그 중첩성은 마치 타임라인 상에서 끝없이 전개되는 시간과 기억들의 기록과도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과 독일을 거점으로 활약해온 최재은 작가의 개인전 <오래된詩>는 11월 22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2007년 로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진 이래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최 작가의 개인전으로 영상과 사운드, 사진, 드로잉 등 갖가지 매체를 통해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비롯된 사유의 흔적이 흥미롭게 반영됐다. 주로 흙과 나무와 같은 대지의 요소를 다루며 삶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온 최 작가는 이번엔 사선을 하늘로 돌린 것이다. 황혼으로부터 새벽까지의 범하늘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과 일출을 연속 촬영한 사진, 오래된 종이 위에 짧은 시구(詩句)들을 기록한 드로잉 등 볼거리가 자못 다채롭다. 문의 153갤러리 02-599-0960, 국제갤러리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최재은 작가 (Finitude)



ART. SPR09P PRADA.COM

PRADA
EYEWEAR

JAMIE BELL
LONDON, MARCH 2012

부엉이 버클에서
위트가 느껴지는 송아지
가족 토트백 25X30cm,
2백95만원
버버리 프로섬.



핑크빛의 히비스커스꽃을
찾아 날아온 벌새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베이저
플로르 푸르비옹 워치
3억원대 부쉐론.



리본 디테일과 양털의
조화가 사랑스러운 귀마개
98만원 매종 미세 by 10
꼬르소 꼬모.



와일드한 동물 모티브를
형상화한 앙고라 니트
3백23만원 펜디.



한 마리의 표범이
템플 위에 자리 잡은
유니크한 선글라스
80만원대 안나카린
칼슨 by 옵티컬 W.



룩 시크 무드를 더한 키티밴글 가격 미정 스와로브스키.

for her Selection

풍성한 퍼 코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름다운 새 장식의 워치, 리얼하게 표현한 뱀
모티브 액세서리와 팬더 주얼리까지.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은 강렬하면서도
지극히 우아하고 럭셔리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가넷과 오팔을 세팅한 팬더 모티브의
이아링 7백20만원대 까르띠에.



뱀 모티브와 엘라게이터
소재의 조화가 감각적인
팬더 액세서리
1백70만원대
발프렌 컬렉션



양털 위머로 보온성을
겸비한 앵클부츠 1백65만원
주세페 자노티 by 10
꼬르소 꼬모.



글로시한 파이톤
소재의 아이패드
케이스 1백10만원
잘리아니.



여성스러운
라인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링크 코트
2천7백만원
버버리 프로섬.



풍성한 양털로 포인트를
준 롱 글러브 1백73만원
플제앤가바나.



양털과
스킨이
미시게



지브라 패턴이 스타일리시한 송아지 가죽
소재의 고미노 슈즈 75만원 토즈.

- 펜디 02-514-0652
- 까르띠에 1566-7277
- 토즈 02-3448-8126
- 분더샵 02-542-8006
- 버버리 프로섬 02-3438-6536
- 부쉐론 02-543-6523
-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 스와로브스키 02-3395-9096
- 옵티컬 W 02-3446-7725
- 발프렌 컬렉션 02-6004-0133
- 잘리아니 02-6905-3752

해금, 주얼 장식, 동물 모티브로
제작한 핸들이 유니크한 송치
소재 클러치 3백70만원대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2F 02.3438.6008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IF 02.3467.8411 - 현대백화점 목동점 IF 02.2163.1189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IF 02.2639.194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F 02.3479.6030 6F 02.3479.6041 - 롯데백화점 김포점 IF 02.6116.3121 - 롯데백화점 잠실점 IF 02.2143.1817 - 롯데백화점 본점 IF 02.772.3265
대구: 현대백화점 IF 053.245.2120 부산: 현대백화점 IF 051.667.0128 - 신세계 센텀시티 IF 051.745.1239



TODS.COM



볼도그 모티브를 강렬하게 표현한 머플러 77만원 지방시.



고급스러운 앨리게이터 소재의 페도라 4백만원대 프라다.



양중맞은 패턴 크라프트기통보이는 슬림 타이 29만원 볼 브라우.



투톤 컬러의 파이톤 소재가 멋스러운 스니커즈 85만원 량방 울모.



빈티지하게 워싱된 가죽에 양털을 덧댄 칼라로 포인트를 준 점퍼 3백26만원 랄프로렌 블랙라벨 데님.

for him Selection

그림에서 튀어나올 듯 리얼하게 표현한 침팬지와 늑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볼도그 모티브까지 강인한 남성성을 대변하는 와일드한 감성의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한마리의 늑대 모티브를 섬세하게 표현한 링 1백10만원대 우고 카치아토리 by 주느세라.



위트가 느껴지는 달 모티브에 크리스탈을 세팅한 카프스 링 28만원 벨그라비아.



메탈 로고 버틀이 눈에 띄는 90가종로퍼 3백82만5천원 루이비통.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에디터 권유진

레오파드 패턴이 돋보이는 레트로 선글라스 58만원 프라다.

와일드한 웨스턴 무드가 느껴지는 코벨소 버클 장식의 벨트 78만6천원 랄프로렌 퍼플라벨.



침팬지 일러스트가 유니크한 화이트 셔츠 55만원 안드레아 폼필리오 by 10 포르소 코모.



생동감이 느껴지는 카우보이와 말 일러스트가 새겨진 울인 데님 팬츠 2백59만원 들체안가바나.



레오파드 패턴과 다이아몬드 장식이 화려한 비벌 레오파드 골드 워치 5천만원대 위블로.



솔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앨리게이터 토트백 45x35cm 가격 미정 토즈.



- 위블로 02-540-1356
- 토즈 02-3448-6008
- 지방시 02-6905-3664
- 프라다 02-3218-5335
- 량방 울모 02-6905-3496
- 볼 브라우 02-3438-6255
- 주느세라 02-515-3151
- 벨그라비아 02-3438-6182
- 루이비통 02-3432-1854
- 10 포르소 코모 02-3028-1010
- 들체안가바나 02-3444-0077
- 랄프로렌 블랙라벨 데님·퍼플라벨 02-6004-0133

EMPORIO ARMANI



High-Tech. High Style.

46 mm Chronograph
Titanium Case, Ceramic Bezel



피부의 미래를 리프로그래밍하다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10년 후 피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라면 가능합니다.
지중해에서 찾은 젊음의 비밀, 라이프시르트(LifeSirt)와
7가지 특허로 탄생한 유스 익스텐드-
피부 주름 개선을 도와 젊음을 먼 미래까지 유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젊음까지 케어하는 진정한 안티에이징-
오늘, 피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ARTISTRY YOUTH XTEND



ARTISTRY™

글로벌 TOP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미식의 경제학, 백화점은 왜 식품관에

18세기를 주름잡았던 프랑스의 법관이자 대단한 미식가였던 브리야 사바랭은 도덕적 관점에서 “미식은 조물주의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인종(忍從)”이라고 했다. 식욕으로 권고하고, 맛으로 지원하며, 쾌락으로 보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늘날,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맛난, 진정한 미식의 세계를 둘러싼 경제 논리에 자극받아 전 세계적으로 레스토랑과 마켓, 고메 솅을 충망라한 ‘미식의 메카’ 푸드 콤플렉스(food complex)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백화점이 펼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욕구에는 한계가 없다. 음식물 섭취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음식물을 둘러싼 문화 체계는 무한하다.”

더 맛나고 더 좋은 음식을 끝없이 갈망하는 인류의 허영이 어린 ‘식탐’을 두고 20세기 프랑스의 지성을 대표했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이렇게 꼬집었다. ‘소비자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전제 아래, 음식도 결국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소비 메커니즘에 부속되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이들, 아니 이처럼 극단적인 미식가들은 차치하더라도, ‘입에 들어가는 건 함부로 고르지 않는다는 식철학(食哲學)을 고수하려는 ‘건강한 미식가(healthy foodie)’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다른 동인들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건강의 소중함, 특하면 불거지는 음식 스캔들에서 비롯된 먹거리에 대한 불신, 눈물 나도록 맛난 요리의 스펙트럼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의 ‘미식 소비’는 믿을 수 있는 식료품을 수급할 수 있는 가격에 사서 즐기고 싶은 바람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단순한 과시욕이나 사치 성향의 발현만은 아닌 것이다. 물론 18세기 프랑스혁명이 발발하기 전후로 싹튼 레스토랑 문화는 부르주아들에게 꽤 사치스러운 ‘즐길 거리’였다. 그러나 혁명이 스쳐 지나가도 미식은 남았으며, 곧이어 예술의 경지에 오를 정도의 가스트로노미의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졌다. 프랑스 미식 혁명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일본의 저널리스트 나가오 켄지는 《가스트로노미》라는 저서에서 20세기 중반부터 미식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상업과 밀접하게 결합된 비즈니스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화려한 장식이나 지나치게 풍성한 메뉴에 대한 각성과 함께 작은 레스토랑의 부상이나 가정의 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리켜 누군가는 ‘가스트로노미의 민주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보통은 레스토랑에서나 접할 수 있던 파인 다이닝을 작은 레스토랑에서 간소한 외식 버전으로 즐기거나 가정에서 약식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겨난 것이다. 세기의 미식가였던 브리야 사바랭은 미식을 식탐이나 대식과 혼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폭식, 폭음은 미식가의 명단에서 제명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자본주의가 낳은 미식의 허브, 모든 걸 갖춘 푸드 콤플렉스

오늘날에도 수백 년 전 기지개를 켜던 방식의 ‘작은 레스토랑’ 문화가 살아 있다. 요리사의 기술과 정성이 농축된 좋은 음식을 안락한 분위기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접할 수 있는 비스트로노미(bistronomie)나 가스트로펍(gastropub)이니 하는 ‘하이브리드 음식점’이 그러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또 대개 선진국일수록 발달한다는 ‘엘빙’에 초점을 맞춘 가정식 조리 문화도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한데 모아놓은 ‘미식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 백화점이나 대형 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드코트(food court)’ 일 것이다. 특히 백화점의 고급 식료품점이 아니라 마켓형 식품관의 ‘일취월장’하는 모양새가 흥미롭다. 산지에서 ‘막 도착한’ 싱싱한 식재료가 즐비한 시장형 슈퍼마켓과, ‘몰 건너’ 온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공품이 가득한 수입품 부스, 엄선된 레스토랑, 조리에 필요한 아기자기한 물품을 진열해놓은 고메 솅 등 식문화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집결해놓은 듯한 이른바 ‘푸드 콤플렉스’다. 그야말로 ‘음식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렴하지도 않지만, 요즘 대세인 ‘로컬 소싱(local sourcing)’ 철학을 바탕으로 신선함을 필요로 하는 재료일수록 지역 산물을 고집한 데 따른 맛과 질의 조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비싸다고만 할 수도 없는 ‘합리적인 럭셔리(affordable luxury)’인 셈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최근 뉴욕과 토리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탈리아(Eataly). 해산물, 치즈, 델리, 파스타, 베이커리, 와인 등 온갖 산해진미를 모아놓은 듯한 다채로운 푸드 섹션을 자랑하는 이곳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버무려진 ‘미각 체험’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식료품과 주방·리빙 용품 쇼핑, 그리고 실용성 넘치는 요리 강좌까지 ‘섭렵’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떡다리는 단어를 합친 이름이 암시하듯 프리미엄 ‘이탈리언 퀴진’을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일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혀 예약을 따로 받지 않기에 줄지어 기다리면서 먹는 광경이 흔하게 펼쳐진다. 이탈리아에 들어선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얻기엔 1시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부카티니 파스타(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우동같이 굵은 파스타)와 나르디니 와인과 같은 이탈리아 명물을 획득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돌아가는 이들도 많다. 가스트로노미의 민주화란 표현이 나와 닿는 장면이다.



몰두할까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조물주는 '미식'을 움직이는 주체들도 반가워할 만한 대목이다. 강남스타일의 프리미엄 식품관 경쟁이 흥미롭다.

흥미진진한 식품관의 끝없는 진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국내에서도 유서 깊은 전통의 맛집이 아닌 백화점 슈퍼마켓이나 식품관에서 길게 줄지어 선 광경을 꽤나 자주 볼 수 있다. 신세계 강남점을 예로 들자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독일 로텐부르크의 전통 과자라는 '슈니발렌'을 사고자 북새통을 이루고, 주말에 폴 바셋 커피를 주문하려면 수십 분을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난 7월 신세계가 '프리미엄 푸드 부티크'를 표방하며 청담동에 야심 차게 문을 연 SSG 푸드마켓에는 소위 '개장 효과'도 작용하긴 한하지만 일본 명장의 노후우로 유명하다는 베이커리의 케이크와 감칠맛이 일품인 성게 소바 등을 맛보기 위해 방문한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바람에 발레파킹이 마비되는 사태도 종종 벌어졌다. 지금도 유기농 사료를 먹고 '티 없이' 자란 토종닭이 새벽에 낳았다는 '재래 토종 방사 유정란과 뿌리채 켄 피트모스 채소'와 같은 품목은 금방 동이 나기 일쑤라고. 최근 대대적인 리뉴얼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연 갤러리아의 새 식품관 '고메 494'에 가면 자리가 없어 짐작시간이면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운 좋게 자리를 잡아 일식당 스시마츠모토의 인기 메뉴 치라시 덮밥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디저트 코너로 이동해 라즈베리 에클레어를 품절되기 전에 구하는 건 또 다른 '타이밍'의 미학이 도와줘야 하는 문제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식품관의 슈퍼마켓 매출로만 연간 1천억원대를 기록했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또 어떠한가. 이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소문난 김치 장인을 '브랜드' 작업을 통해 슈퍼마켓에 들여놓는 등 고객의 수요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월등한 실력 때문에 압구정본점은 '반찬의 메카'로 통한다.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에는 호기심도 작용했겠지만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의식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맛나고 건강한 먹거리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이 가치를 두는 품목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트레이딩업(trading up)' 소비의 주 대상이 될 만하지 않은가.

강남 3인방의 경쟁, 미식 르네상스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수놓고 있는 이들 3인방의 미식 경쟁은 저마다의 특징점이 있기에 더욱 흥미롭다. 갤러리아 명품관 주주의 번지수에서 이름을 착안한 고메 494. 마켓

(grocery)과 식음 시설(restaurant)을 합친 '그로서리언트(grocerant)'라는 개념을 내세운 고메 494는 상대적인 공간의 협소함을 인식해 '바이빅, 바이 스몰'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쌀, 기저귀, 화장지처럼 부피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59개 품목의 생활 용품을 대상으로 물건 대신 진열된 '빅 카드'라는 상품 주문 카드만을 집어 결재하면 포터맨이 차량까지 '운반'을 책임진다. 품질 좋다는 계약재배 쌀 1kg짜리와 양증맞은 미니 버전의 '본미팡' 잼이나 '기코망' 간장 등 싱글족이나 단기 체류자를 위한 상품을 구비해놓은 '바이 스몰' 코너의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바쁘거나 혹은 게으른 현대인의 성향을 고려해 구매할 농산물을 무료로 손질해주고 고구마, 감자 등 '영양 간식'을 즉석에서 굽거나 썰어서 판매하는 '컷앤베이크(Cut & Bake)' 코너도 재미나다(실제로 황금고구마는 오후에 가면 떨어질 정도로 인기 만점인 품목). 수경 재배한 친환경 쌈채류를 뿌리째 가져다놓은 '텃밭형 진열'도 이채롭다. 갤러리아는 특히 외식업체의 구성이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원의 명소인 비스테이크(스테이크)와 디부자(피자)를 비롯해 장안에 소문난 맛집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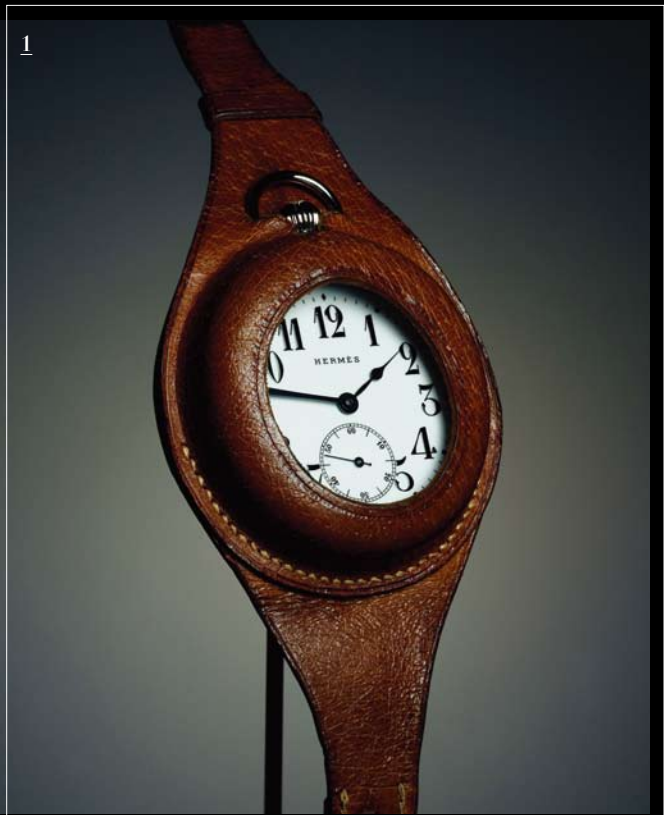
SSG 푸드마켓은 해외에 체류해본 경험이 있다면 향수를 지닌 이들도 꽤 될 법한, 홀 푸즈 마켓(Whole Foods Market)이나 트레이더 조(Trader Joe's) 같은 유기농 전문 식품 매장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뉴욕의 명물 웰시 마켓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런던 헤르즈 백화점 식품관의 룸투룸(room-to-room) 형태의 진열 방식을 도입하고, 구역별로 인테리어에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3백여 개 브랜드를 취급하는 방대한 그로서리 존과 명인들의 손길을 거쳤다는 50여 종의 장류를 모아놓은 '장방', 3백여 종류의 치즈와 살라미를 거느린 '치즈 셀러' 등을 자랑한다. SSG 관계자는 "룸에서 룸으로 이동하는 공간을 넓게 배치한 건 마치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강조해 고객에게 차별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층엔 '패스트 슬로푸드'를 내세운 다국적 요리를 선보이는 카페형 레스토랑인 '그래머시 홀과 맞춤형으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베키아에누보'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 상권의 최강자인 현대 압구정본점이 단지 '일인자의 여유'로 낮 놓고 있을 리 없다. 구매력을 갖춘 미식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곳은 바이어들이 전국에 숨어 있는 전통 식품 명인과 맛집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발굴하면서 구축한 탄탄한 프리미엄 상품군에 큰 자부심을 품고 있다. 월 1회 VVIP 고객을 5~6명 초청해 한우, 제철 과일, 생선 등 생식품의 맛을 타사 점포의 상품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비교, 평가할 정도로 신선 식품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 '30분 타르트라 불릴 정도로 금세 다 팔려 나가는 타르트'로 유명한 빵집 르알레스기를 지난해 입점시킨 데 이어 올봄엔 독일 천연 식품 브랜드 크레센도, 8월엔 할리우드 배우, 글로벌 기업 CEO 등 유명인들이 애용한다는 페닌슐라 호텔의 푸드 부티크를 들여오기도 했다. 또 얼마 전 3백70여 개 제품을 갖춘 수입 치즈숍 '다 프로마제리'도 개장했다.

백화점이 프리미엄 식품관에 애정을 쏟는 이유

이처럼 백화점이 '미식 경쟁'에 열을 올리는 건 단지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일단은 식품관의 실적 기여도가 높은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들의 터널을 좀처럼 벗어날 것 같지 않는 불황의 늪에서도 현대 압구정본점 식품관의 매출은 지난 수년간 꾸준한 성장곡선을 타왔다. 식품관 내 슈퍼마켓 매출을 보자면, 지난해에는 두 자릿수(14.3%) 성장을 기록해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1천1백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백화점의 이점으로 슈퍼마켓의 매출 효율은 압구정본점 평균 평당 매출에 비해 3배 이상 될 정도로 높은 편이라는 통계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의류, 가방, 보석 등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의 품격과 힘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이 명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식품 매장을 이용한 고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5%라는 위력적인 수치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었겠는가. 이에 따라 식품관의 위상이 지나는 상징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파리 봉 마르세 백화점의 럭셔리 식료품 매장인 그랑드 에피세리(Grande Epicerie)가 뽑어내는 고급스러운 오리와 이미지를 생각해보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관계자는 "내점 고객의 절반 이상이 슈퍼마켓을 다녀가기 때문에 식품 매장은 백화점 전체의 격과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출신의 40대 CEO 등용으로 화제가 된 갤러리아의 박세훈 대표는 "식품관은 백화점의 심장"이라고 단언하며 고메 494를 무기로 1990년대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제2의 성장판'을 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갤러리아는 동종 업계에 입점되지 않은 맛집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본연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방어책의 하나로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상생의 전술까지 구사했다. 신세계가 반포 지구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강남점을 시작으로 미국의 프리미엄 식료품 브랜드인 딘앤델루카(Dean & DeLuca)와 영국의 하이엔드 슈퍼마켓 브랜드 웨이트로즈(Waitrose)를 국내에 들여오는 동시에 SSG 푸드마켓과 같은 부티크 형태의 슈퍼마켓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적극적인 행보도 비슷한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 집에 있는 동안 그 행복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라는 금언이 있다. 확실히 먹거리의 내실과 품격, 그리고 창조성은 소비자에게도, 유통업자에게도, 재배를 하는 농가에게도 '풍요와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호스트이며 손님이 아니던가. **ES** 에디터 고성연

Eternal story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시계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역사와 전통의 특별함이 감동을 선사한다. 클래식한 시계부터 스포티한 시계까지 올해 특히 눈길을 끈 의미 있는 시계들을 소개한다.



1912 : Hermès Arceau Ecuyère

에르메스 하면 마구 생산으로 시작해 지금은 럭셔리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패션 브랜드를 떠올린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시계 분야에도 진지하게 접근하는 브랜드이다. 시계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인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르메스의 아카이브 사진을 보면 1837년 에르메스를 창립한 티에리 에르메스의 3대 손인 에밀 에르메스의 딸들, 그러니까 4대손인 이본느, 자클린, 시몬트, 그리고 알리스 에르메스가 휴가 때 찍은 사진이 있다. 그때 자클린이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포르트-에니옹(porte-oignon)'이다. 프랑스어로 포르트는 문, 에니옹은 양파를 의미하는데 회중시계를 가족으로 감상 형태이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따로 시계를 꺼낼 필요 없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에르메스 최초의 손목시계로 여겨진다. 그 후 에르메스는 가방에 부착하는 가방 시계, 시계를 버클에 넣은 벨트 시계 등 수공으로 제작한 시계를 소개했고 2006년부터 스위스에 시계 회사를 설립해서 시계를 소개하고 있다. 모바도, 예거 르쿨트르, 바셀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등 전문 시계 브랜드의 무브먼트를 사용하다 2003년 전문 무브먼트 제조사인 보세 매뉴팩처 플러리에와 제휴하고 그 후 25% 지분을 소유하면서 에르메스만을 위한 무브먼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탄생한 무브먼트 중 하나가 바로 1912년 처음 소개한 손목시계에서 착안해 이름 붙인 H1912이다. 2012년, 손목시계를 소개한 지 1백 년이 되는 해에 에르메스는 H1912를 탑재한 아소 에큐에르 시계를 소개한다. 특별히 1백 주년을 기념한 시계는 실버와 화이트 컬러의 자연 산 자개 다이얼에,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으로 1백 개만 한정 생산했다.

1 1912년 포르트-에니옹 시계.
2 H1912 무브먼트를 탑재한 아소 에큐에르 1백주년 기념 에디션 시계.
3 로터에 H 자 이니셜을 각인한 H1912 무브먼트.



World Watch : Cartier Tank

처음부터 손목에 착용할 것을 고려해 1904년에 제작한 산투스 다음으로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컬렉션이 탱크이다. 이름 그대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탱크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디자인이 특징적인 시계다. 1917년 미국의 존 퍼싱 장군에게 이 시계를 소개한 이래 탱크는 1922년 탱크 루이 까르띠에, 1921년 곡면을 이룬 탱크 신드레, 1930년 중국 모티브의 탱크 쉬누와즈, 1932년 다이얼을 뒤집을 수 있는 탱크 바스쿨라트, 1936년 비대칭형의 탱크 어시메트릭, 1952년 직사각형 케이스의 탱크 렉탕 글 등 조금씩 그 형태를 바꿔왔다. 게리 쿠퍼, 앤디 워홀 등 탱크를 애호한 사람도 많았다. 탱크가 이렇게 까르띠에의 세계 진출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변신 덕분이었다. 지역에서 이름을 탄 탱크도 소개했는데 아가지기한 프랑스적인 탱크 프랑슈에 이어 1989년에는 길쭉한 사각형에 곡면을 살린 미국형 탱크 아메리칸, 그리고 2012년에는 영국을 모티브로 한 워엄 있는 탱크 앙글레즈를 론칭했다. 탱크는 결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지 위해서 까르띠에는 2012년 빈티지 탱크 시계들을 모아 '탱크 네버 스톱(Tank Never Stop)'이라는 전시를 열어 새로운 라인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1 탱크 시계를 착용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2 초창기 탱크 시계. 3 1917년 최초로 탱크 시계를 만난 미국의 존 퍼싱 장군. 4 배우 게리 쿠퍼. 5 2012년 소개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6 탱크 시계를 착용한 앤디 워홀.



Navigation : Breitling Navitimer

시간을 알려주는 매체가 많아져서 시계의 위상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도구로서 시계는 중요하다. 바다를 넘어 세계를 정복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해상시계가 필요했듯 항공을 날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행 속도나 고도, 온도, 거리와 연료의 양 등 여러 가지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계산자가 개발됐다. 1933년 미국 해군 중위 필립 돌린이 개발한 플라이트 컴퓨터도 그중 하나다. 이를 원형으로 만들어 2차 세계대전 중에 40만 개가 넘게 생산된 E6B를 응용한 슬라이드룰을 개발해 1940년 특허를 받은 브라이틀링. 1952년 내비게이션과 타이머란 이름을 결합해 슬라이드룰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시계를 소개한다. 현대전화로 수만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내비타이머는 항공기 오너 및 파일럿협회(AOPA: Aircraft Owners and Pilots Association)의 공식 시계로 지정되면서 탄생 6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일럿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릴 적 꿈이 매일 하늘을 나는 것과 내비타이머를 착용하는 것이었다는 배우 존 트래볼타. 그는 이미 6천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과 집 앞에 활주로와 여러 항공기를 소유한 것으로 유명한데 브라이틀링의 광고 캠페인 모델로 활동하는 그가 착용한 시계도 내비타이머이다. 브라이틀링은 얼마 전 내비타이머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5백 개 한정판 내비타이머 블루 스카이를 소개했다. 브라이틀링 최초의 자사 무브먼트 어를 탑재해 더욱 의미가 깊다.

1 브라이틀링 광고 캠페인 모델인 존 트래볼타. 2 초창기 내비타이머의 광고 캠페인. 3 한정판 내비타이머 블루 스카이.





Personal & Private : Van Cleef & Arpels Pierre Arpels

주얼리 브랜드로 출발했기에 간간히 시계를 제작한 반클리프 아펠이 1949년에 소개한 시계는 태생 자체가 특별했다. 창립자인 에스텔 아펠의 형제 줄리앙, 그 뒤를 이어 세 아들 자크, 클로드, 피에르 아펠이 합류했는데 활동적인 스포츠맨이자 예술가로 사교계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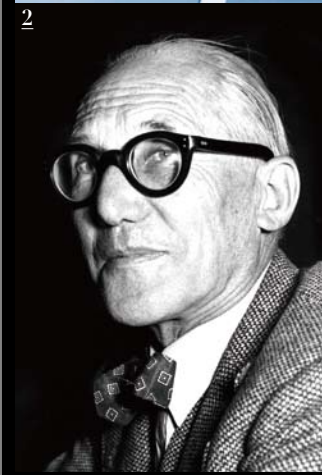
성이 높았던 막내 피에르 아펠이 30세 되던 1949년 자신이 착용하기 위해 구상한 시계로 일반인들에게 팔기 위한 시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화이트 래커 다이얼에 로마숫자를 넣은 깔끔한 다이얼, 그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케이스를 이어주는 T 자 형태의 러그가 독특한 시계는 1971년에야 아니셀과 연도를 따 PA49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도 소개되던 PA49는 올해 한 차원 높은 마무리로 피에르 아펠이란 이름으로 거듭났다. 로마숫자 인덱스는 스탬핑이 아니라 부착한 형태로 다이얼 중앙에는 마름모꼴의 엠블럼을 담은 패턴을 넣어 입체감을 더했고 무브먼트는 울트라 싼으로 유명한 피에르 830P를 탑재해 얇고 날렵한 형태였다. 다이얼과 소재, 사이즈의 고급스러운 진화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시대의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다.

1 피에르 아펠(왼쪽)의 생전 모습, 2 초창기 시계의 스케치, 3 2012년 소개한 새로운 피에르 아펠 시계.

Le Corbusier : Girard-Perregaux Le Corbusier Trilogy

화가, 조각가, 건축가, 그리고 사상가이기도 했던 샤를 에두아르 잔레. 파리에서 개명한 후 우리에게 르 코르뷔지에로 알려진 현대 건축의 거장은 1887년 현재 시계 산업으로 유명한 스위스 쥐라 산맥의 도시 라쇼드퐁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그곳 장식 미술 학교에서 시계 장식을 배운 바 있다. 지금도 라쇼드퐁에 가면 르 코르뷔지에가 25세 때 부모를 위해 지은 집인 메종 블랑슈에 가볼 수 있다. 라쇼드퐁에서 터를 잡은 시계 브랜드 제라 페리고가 르 코르뷔지에의 탄생 1백25주년을 위한 특별한 컬렉션을 제작하고 메종 블랑슈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빈티지 1945 르 코르뷔지에 트릴로지'라고 이름을 붙인 3개의 시계로 1929년에 선보인 LC4 침대식 긴 의자, 인간의 형상을 그린 모듈러 등 생전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에서 차용한 형상과 콘크리트, 금속, 새개로 건축적인 질감을 표현한 다이얼과 스트랩이 특징적이다. 각 시계는 5개씩 한정 생산했다. 제라 페리고는 르 코르뷔지에가 다녔던 장식 미술 학교인 에콜 다르틀리케(the Ecole d'Arts Appliques)에서 조각을 배우는 4명의 학생을 후원하기도 한다.

1, 3 제라 페리고 빈티지 1945 르 코르뷔지에 트릴로지, 2 르 코르뷔지에.



Reborn Legend : Audemars Piguet Royal Oak

전쟁 후 밀리터리 시계가 대거 출현한 이후 1970년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시계와 그 사이를 넘나드는 시계로 럭셔리 브랜드에서 내놓기 시작한 것이 스포츠 시계다. 오데마 피게에서는 로얄 오크가 그런 존재였다. 1972년 제럴드 젠타가 디자인한 로얄 오크는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했고 오데마 피게를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지금은 클래식해 보이는 시계는 특유의 팔각형 베젤과 타피시리라 부르는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 매끄러운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해 기능성을 강화한 로얄 오크 오프셔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여성용도 내놓으면서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40주년을 기념해 두께가 얇은 울트라 싼 버전과 40개만 제작한 오픈워크 엑스트라-싼 버전, 투르비용 버전 등 새로운 로얄 오크를 소개했고 이를 기념하는 전세계 순회 전시도 개최했다.

1, 2 초창기 로얄 오크의 스케치와 실제 시계, 도해도, 3 1972년 소개한 오리지널 버전을 그대로 재현한 15202ST 버전.

For Father & Son : IWC Pilot Mark Series

시계의 특별한 매력은 대를 이어 물려주는 감동적인 유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파퓰러 필립의 경우 이를 주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를 차용한 브랜드가 또 있으니 IWC다. 2008년 IWC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착용하는 파일럿 시계를 소개했다. 당시 시계는 마크 16 모델로 아버지의 시계는 플래티넘 케이스의 빅 파일럿, 아들의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옐로 톤의 인덱스와 핸즈, 브라운 톤의 스트랩이 돋보였다. 2012년 IWC는 여기에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 버전을 더했다. 아버지의 시계는 케이스 지름이 46mm의 빅 파일럿 시계로 칼리버 51111을 장착, 7일간 파워 리저브 되고 아들의 시계는 지름이 36mm로 칼리버 30110을 장착한 파일럿 마크 16 시계이다. 실버 다이얼에 블랙 스트랩으로 매치한 시계는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소개해 이전에 비해서 더욱 폭넓은 사랑을 받을 듯하다. 상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DNA를 가진 시계를 착용함으로써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삭막해지는 가족 관계를 위한 배려라는 긍정적 측면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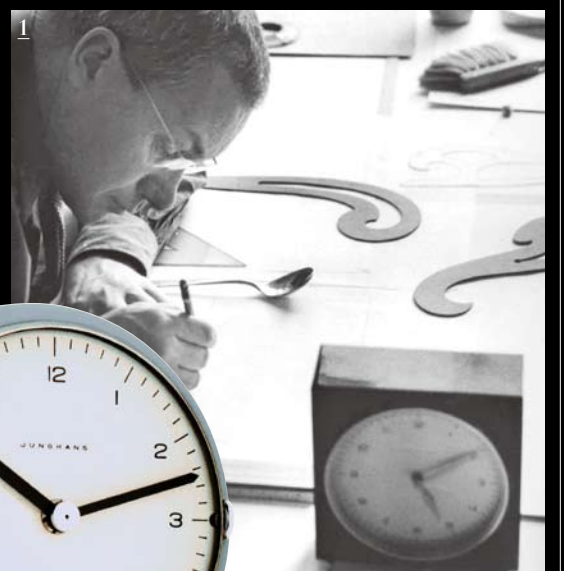
1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2012년 새롭게 소개한 마크 16 버전, 2 올해 신제품인 마크 17.



The Spirit of Bauhaus : Junghans Max Bill Chronoscope

독일 하면 실용적인 기능에 충실하며 군더더기 없고 간결한 디자인을 떠올린다. 이는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가 미술 학교와 공예 학교를 병합해 집을 짓는다는 의미의 하우스바우에서 착안해 이름 붙인 학교, 바우하우스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바우하우스 출신으로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라즐로 모홀리나기, 막스 빌이 있다. 스위스 태생의 막스 빌은 조각, 공예, 가구 디자인을 했는데 1957년 독일의 시계 회사 융한스와 인연을 맺고 주방용 시계를 제작한다. 그 성공에 힘입어 1962년 손목시계도 제작하는데 이것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재한 융한스의 막스 빌 컬렉션이다. 2000년대 복각한 막스 빌 컬렉션은 시, 분만 있는 초창기 시계에 초를 더한 심플한 버전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넣은 크로노스코프도 더해졌다. 1960년대를 떠올리게 해주는 밀라노 메시 브레이슬릿과 가장자리로 갈수록 곡면을 이룬 핸즈와 볼록한 글라스,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스 백에 각인한 막스 빌의 시인은 바우하우스를 흠모한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다.

1, 3 막스 빌의 가구 컬렉션, 2 막스 빌이 융한스와 손잡고 제작한 주방용 시계, 4 한결같은 디자인을 간직한 막스 빌의 융한스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피르미자아니 룬다 1950** 케이스 두께가 7.80mm인 심플한 디자인의 엑스트라 플랫 워치. PF700 무브먼트의 크기 역시 두께가 2.6mm에 불과하지만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고안되어 브랜드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100% 인하우스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깊다. 2천만원대. 문의 02-3479-1986

까르띠에 랭크 솔로 XL 브랜드의 시그니처 워치인 탱크 솔로에 까르띠에에서 직접 제작한 칼리버 까르띠에 049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신제품. 절제된 직사각형 케이스와 로마자 인덱스, 클래식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블루 카보숑 크라운이 멋스럽다.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하는 것이 정석이다. 4백만원대. 문의 1577-7277

반클리프 아펠 피에르 아펠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피에르 아펠 워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반클리프 아펠의 매력적인 마더오브밀 문자판을 우아하게 매치했다. 1949년 선보인 최초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더없이 고전적이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워치인 만큼 소장 가치가 높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3440-5660

에거 르클르르 그랑 리베르소 울트라 싼 트리뷰트 투 1931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사랑받는 리베르소 워치 중 1931년

최초의 리베르소 컬렉션의 탄생을 기념하는 워치.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얼은 미니멀의 정수를 원하는 남성에게 제격이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0-5536

오메가 씨마스터 이루어 테라 1백60여 년 전통을 이어가는 오메가의 스테디셀러 워치. 1999년 처음 선보인 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무브먼트인 코-엑시얼 8500 칼리버를 탑재하고 있다.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워치로 데일리 워치로 손색이 없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IWC 포르투기즈 크로노그래프 최근 예물 시계로도 각광받는 IWC를 대표하는 워치. 1930년대 포켓 워치 디자인을 손목시계에 대입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볼드한 다이얼을 선호하는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스틸 소재 케이스에 지름 40.9mm, 칼리버 79350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2639-1950

브레게 클래식 7337 브레게에서 처음 시계를 구입하는 남성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이다. 프랑스 파리 방돔 광장에 위치한 브레게 뮤지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기 브레게 시계를 기본으로 디자인했다. 요일과 문페이스, 날짜가 표시되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엔틱한 분위기의 워치다.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중 선택할 수 있다. 4천8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에디터 **배미진**



Be a gentleman

모든 시계를 나중을 위한 투자자치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값비싼 시계만큼이나 언제나 착용할 수 있는, 평생을 같이하는 친구 같은 시계는 세월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 가격을 넘어서는 힘을 지닌다. 평생 착용해도 후회 없는 브랜드별 클래식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모델: 유정훈,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DERCUNY

DERERCUNY

롯데 본점 4층 02-772-3488 / 롯데 잠실점 4층 02-2143-7422 / 롯데 김포공항점 3층 02-6116-3346 / 롯데 평촌점 3층 031-6006-9326 / 롯데 중동점 2층 032-320-7390 / 롯데 센텀시티점 3층 051-730-3352 /
갤러리아 압구정점 3층 02-6905-3398 /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층 042-720-6287 / 갤러리아 수원점 2층 031-223-8860 / 신세계 센텀시티점 3층 051-745-2750 / 현대 목동점 3층 02-2163-1665 / 현대 신촌점 5층 02-3145-2458 /
현대 충청점 2층 043-909-4270 / N몰리지 분당점 2층 031-707-7337

age of Signature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태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이콘 주얼리.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기존에 워터 시계 범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의 키 컬렉션 네크리스. 1880년대 빈티지 열쇠에서 영감을 얻었다.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타 키 3천2백만원대, 로맨틱하고 빈티지한 인텐트 프림로즈 키 1천3백만원대,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의 페탈 키 1천3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의 하모니가 아우라진 까르피에를 대표하는 트리니티 컬렉션. 1백여 년 전에 첫선을 보인 트리니티 컬렉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트리니티 펜던트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5천3백만원대 까르피에, 진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모던하게 완성한 밸런스 컬렉션. 우아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밸런스 네크리스 5백50만원대, 이크로아 진주 사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유니크한 밸런스 링 1천2백만원대, 5개의 최상급 이크로아 진주를 세팅한 밸런스 링 2백70만원대 모두 타사키. 다채로운 동물 모티브 주얼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부쉐론의 에니멜 컬렉션 링, 등에 주얼리를 세팅한 인턴지를 두르고 있는 인도 코끼리 허티 링 7천만원대,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를 형상화한 아울 링 7천만원대, 카멜레온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차보라이트와 블루 사파이어로 표현한 카멜레온 링 6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풍요, 부활, 장수를 상징하는 뱀 모티브의 세르펜티 컬렉션 링 2천9백만원대 불가리. 천연 소재 시계를 사용해 독특한 느낌의 빈티지 알함브라 레더우드 브레이슬릿, 우드 소재의 독특한 결과 질감이 우아함을 더한다. 5백만원대 빈클리프 아펠. 트리니티 모티브에 팬더의 패턴을 적용한 트리니티 쇼퍼슈 브레이슬릿 5천8백만원대 까르피에. 이터널이어로 뱀을 의미하는 세르펜티 브레이슬릿은 손목에 감겨 착용감이 편안하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피에 세팅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핑크 골드 소재에 벨의 머리를 핑크 루블라이트로 세팅한 브레이슬릿 6천1백만원대 불가리. 고전적인 텍스처가 돋보이는 빈티지 알함브라 핑크 골드 싱글 펜던트 3백만원대 모두 빈클리프 아펠. 에디터 배미진

티파니 02-547-9488 불가리 02-2056-0172 까르피에 1566-7277 부쉐론 02-543-6523 빈클리프 아펠 02-3440-5660 타사키 02-3461-5558



Rennes Opera, Rennes, France

A mark of true design



Baroncelli Moonphase

Elaborate automatic movement, stainless steel case with PVD coating, non-reflecting sapphire crystal, transparent caseback, water-resistant up to a pressure of 5 bar (50 m / 165 ft).

MIDO®

SWISS WATCHES SINCE 1918

스와치그룹코리아 www.mido.kr 02.3149.9599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노원점 강남점 영등포점 관악점 청량리점 미아점 분당점 일산점 구리점 평촌점 안양점 중동점 김포공항점 인천점 대전점 상인점 대구영광 광주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동래점 포항점 창원점 파주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점 신촌점 미아점 킨텍스점 중동점 충청점 대구점 동구점 울산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센텀시티점 AK플라자 수원점 핑택점 원주점 LOTTE DFS SEOUL SHILLA DFS SEOUL DONGHWA DFS SEOUL

sleek Walker

멋에 민감한 동시대 여성들은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에 흠뻑 빠져 있다. 히든 굽을 넣어 훌륭한 비율을 연출해주는가 하면, 다양한 소재 매치와 스타드 장식으로 구두 못지않은 자신감과 애티튜드를 더해줄 스니커즈가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메탈릭한 실버 컬러의 하이 톱 슈즈, 운동화 안쪽에 굽이 숨어 있어 구두를 신은 것처럼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주며, 타이탄 스키니 진부터 스커트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다. 1백18만원 **이자벨 마랑**. 경쾌한 핑크 컬러가 눈에 띄는 레이스업 스니커즈. 표면을 광택 처리해 비와 오염에 강하며, 사이드의 지퍼 장식으로 신고 벗기 편리하다. 70만원 **주세페 자노티 by 10 코르소 꼬모**. 양가죽에 파이톤 프린트를 입힌 스니커즈. 광택이 도는 굽은 끈 덕분에 여성스러운 느낌이 묻어난다. 포말한 블랙 팬츠에 매치할 것을 추천한다. 61만원 **프라다**. 스타드와 버클 장식이 특징인 신앙가죽 웨지힐 스니커즈. 시폰 스커트와 같은 섬세한 소재와 매치하면 색다른 멋을 느낄 수 있다. 40만원대 **아쉬**. 스웨이드와 캔버스의 소재 매치가 고급스러운 웨지힐 스니커즈. 발목 부분에도 통하니 폭이 좁은 팬츠를 넣어 슬림하게 연출하자. 1백30만원대 **루이 비통**. 견고한 소가죽과 매끈한 옆 라인이 돋보이는 브라운 스니커즈는 오래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다. 58만원 **피치오티**. 발등의 금색 지퍼 장식이 포인트인 스웨이드 스니커즈. 앞코와 발뒤꿈치, 발목 부분의 가죽 트리밍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43만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컵스 by 라플렉시옹**. 에디터 **이예진**

이자벨 마랑 02-310-5335 10 코르소 꼬모 02-3018-1010
 프라다 02-3442-1830 아쉬 02-6905-3878
 루이 비통 02-3432-1854 피치오티 02-575-8757
 라플렉시옹 02-6905-3775

MOGG



MOGGeneration & Construction
www.mogg.co.kr

After a workout

피트니스 클럽의 샤워실과 파우더 룸에서는 단 몇 가지 특별한 제품만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동으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을 식혀주는 쿨링 제품, 모발과 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 등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사용은 간편하고 피부는 젊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제품들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kin Care

(왼쪽부터) 오리진스 닥터아일랜드 컨디셔닝 립밤 심황 성분이 가칠고 매미른 입술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고휘 립 에센스, 유가농 코코아 버터와 호호바, 비즈 왁스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망고씨 버터와 썬겨 오일이 항산화제를 돕는다. 4g 2만5천원. 문의 02-3440-2783

랑콤 제노피크 HD 아이 컨센트레이트 남성의 민감한 눈가를 위해 개발한 아이 세럼이다. 콜 온 타입의 애플리케이션이 부착되어 있는데 3개의 불이 회전하면서 제품을 바르는 순간 눈가에 시원한 마시지 효과를 선사한다. 안티 디크서클 콤플렉스와 옴틱 리플렉터 성분이 디크서클을 개선하고 눈가 부기와 주름을 개선한다. 15ml 4만9천원. 문의 080-022-3332

랩시리즈 BB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SPF35 PA+++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의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동 후 약속이 있다면 샤워 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얼굴과 목에 얇고 고르게 펴바른다. 50ml 5만5천원. 문의 02-3440-2774

클라린스 앙티 오바디 트리트먼트 오일 100% 천연 식물 성분으로 만든 제품으로 30년 전 첫선을 보인 이래 꾸준히 사랑받는 클라린스의 스테디셀러다. 부드러운 오일 성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몸의 순환을 도와 부기를 완화하고 슬림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가꿔준다. 100ml 6만5천원. 문의 080-542-9052

겔랑 수퍼 아이유 데이 클링 페이스 스틱 일명 수분 스틱이라고 불린다. 휴대가 간편하고 끈적임이 없으며 적정량의 수분을 제공함으로써 피부 노화를 완화하고 활력을 증진시킨다. 운동 후 뜨거워진 얼굴에 바르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9g 7만1천원. 문의 080-343-9500

켄조키 프레시 로투스 워터 퓨어 웰빙 스프레이 건조한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워터 미스트. 화이트 로투스 플랜트 워터를 함유,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안색을 맑게 개선해준다. 운동 중이나 샤워 후 사용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한다. 125ml 3만8천원. 문의 080-344-9500

달팡 아로마틱 리뉴잉 밤 기초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 밤. 가난한 아프리카 시아버터와 만다린, 캐머미일, 자몽, 스위트 오렌지, 오렌지 블러썸, 로즈우드 에센셜 오일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해 피부 탄력을 강화시킨다. 15ml 10만원. 문의 02-3440-2706

산타리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에르바 민트가 첨가된 리프레싱 토너. 풍부한 페퍼민트 추출물이 외부 자극에 의한 트러블과 붉어진 얼굴을 진정시켜준다. 쿨링 효과가 있어 운동 후나 먼도 후에 바르면 좋다. 땅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운동 시 손수건에 제품을 적서 냉타월로 활용할 수 있다. 250ml 4만8천원. 문의 02-546-1612

Cleansing

(왼쪽부터) 닥터 브로너스 티트리 퓨어 캐스틸 샴푸 습성 피부에 적합한 클렌저, 얼굴과 몸에 사용할 수 있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과다 분비되는 피지와 유분을 제거, 보습보송한 피부로 가꿔주며 향균 효과가 있어 얼굴과 목, 등의 여드름도 완화해준다. 올 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은 풍부한 거품을 내고 세정력을 발휘해 각질을 제거한다. 238ml 1만2천5백원. 문의 02-3414-1109

샤넬 알튀르 옴 에디샤우 블랑슈 헤어 앤 바디 워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고 향과 풍부한 거품으로 상쾌하게 씻어주는 올인원

클렌저, 화이트 마스크, 샌들우드, 앰버, 바닐라 등의 향이 혼합되어 부드럽으면서도 남성적인 향기를 풍기는 게 매력으로 고농축된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제작했다. 용기가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리하다. 200ml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로베킨즈 뿌르옴 헤어 앤 바디 샴푸 로베킨즈는 건조에 의해 만들어진 물이라는 뜻으로 물의 생명력과 젊음, 순수, 자유 등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목욕 전용 제품이다. 로베킨즈 뿌르옴 헤어 앤 바디 샴푸는 젤 타입으로 걸쭉한 클렌징 효과를 발휘해 피

부에 생기와 활력을 더한다. 또 아쿠아티 시트러스 향이 운동 후의 개운함을 배가시킨다. 150ml 4만1천원. 문의 080-344-9500

비오뎀 옴 아쿠아티피티니스 샤워 젤 전신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머릿결 또한 부드럽게 가꿔주는 헤어와 바디 겸용 샤워 젤이다. 수돗물에 함유된 석회질을 중화해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해주므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다. 인삼 추출물 성분이 보습 인자를 강화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한다. 또 비타민 복합체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피부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신에 가볍

게 마사지를 사용하면 후 씻어낸다. 200ml 3만3천원. 문의 080-022-3332

키엘 올인원 리뉴얼 워시 운동과 야외 활동 시 몸과 헤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클렌저. 100% 미생물로 인해 분해되는 친환경 클렌저로 환경오염을 줄여주는 게 특징이다. 질감이 가벼우며 뛰어난 세정력과 함께 모발에는 효과적인 컨디셔닝 효과를, 피부에는 진정 효과를 제공한다. 240ml 2만4천원. 문의 080-022-3332 진행 **민생원 에디터 배미진**



john varvatos
ARTISA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Waist watchers

재킷 사이로 은근하게 드러나는 벨트는 남성의 품위와 센스를 드러내는 히든 아이템. 스타일은 한 곳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좋은 소재의 벨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스타일에 멋을 더해줄 남성 벨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빈티지한 버클에 별과 도트 패턴이 유니크한 소가죽 벨트 23만원 **폴 스미스**, 멋잇한 룩에 멋을 더해줄 세련된 블루 컬러의 송아지 가죽 벨트 1백48만원 **카톤**, 부드러운 곡선형의 버클이 눈에 띄는 송아지 가죽 벨트 39만8천원 **탈프로렌 퍼플라벨**, 얇게 반으로 가른 나파 레더 사이에 알루미늄 필름을 넣어 견고한 세이프를 유지하는 벨트 6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매끈한 광택이 느껴지는 블루 컬러의 송아지 가죽 벨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브론즈 컬러의 메탈 장식에 감각적인 소가죽 벨트 46만원 **Z제나**, 편칭 디테일이 돋보이는 브라운 컬러의 소가죽 벨트 가격 미정 **구찌**, 부분적으로 가죽을 매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코트 벨트 21만원 **토즈**, 스포티한 디자인의 소가죽 장갑 37만5천원 **제나스포르츠**, 에디터 권유진

폴 스미스 02-3447-0278

카톤 02-514-9088

탈프로렌 퍼플라벨 02-545-820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3

루이 비통 02-3432-1854

Z제나 02-546-6287

구찌 1577-1921

토즈 02-3438-6008

제나스포르츠 02-2016-5325

T E D B A K E R

L O N D O N

2012 테드의 가을 겨울 컬렉션

전형적인 영국의 패션을 원칙으로, 도시적인 아름다움과
전원의 꿈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균형 잡힌 옷감과 패션 스토리가 만나
테드만의 고귀한 멋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스타일을 찾기 매우 힘든 가을 겨울 시즌이 왔습니다.
하지만, 테드에 오시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타일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전형적인 남성 패션, 여성 패션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다음의 매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서울
남성 7층, 여성 3층

롯데 백화점 - 평촌점
남·여성 4층

대백 플라자 - 대구
남성 7층, 여성 4층

Pin Up!

수트에는 넥타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옮겨올 남성복 트렌드를 지배한 부토니에 연출법을 눈여겨볼 것. 매일 입는 수트나 재킷에 브로치 장식을 더하는 것으로 스타일의 완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변신이 가능하다. 꽃 모양의 부토니에와 깃털 브로치, 가죽 포켓 스케어 등으로 완성한 11가지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네이비 브라운 체크 패턴 재킷 3백만원대, 캐시미어 카디건 1백만원대, 실크 스카프 40만원대 모두 구찌, 깃털 장식의 헌터 핀 80만원대 루이 비통.



코듀로이 재킷 2백만원대, 캐시미어 니트 1백만원대, 스카프 50만원대, 코트 포켓 스케어 3개에 20만원대 모두 구찌, 부토니에 3만9천원 라피규라 by 더스튜디오케이.



수트와 헝커치프 가격 미정, 셔츠 4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냐, 체크 타이 17만9천원 피오리오 by 더스튜디오케이, 부토니에 15만원 휴고 보스.



데님 재킷 가격 미정, 체크 셔츠 50만원대, 터틀넥 1백30만원대, 헝커치프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냐, 권총과 갈 모양의 부토니에 30만원대 모두 프라다.



재킷 3백만원대, 블랙 셔츠 50만원대, 블루 타이 20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블루 컬러 플라워 부토니에 23만원, 신발 모양 부토니에 27만원 모두 랑방 옴므.



울 재킷 85만원, 니트 47만원 모두 폴 스미스, 셔츠 가격 미정 Z제냐, 가죽 포켓 스케어 18만원 가르방 by 10 피르소 고프, 부토니에 10만원 JP 그레이톡 by 지스트리트 494 옴므.



수염 모양의 부토니에 장식이 달린 벨벳 재킷, 77만5천원 루치노 by 쿤, 블루 컬러 코트 셔츠 91만원 키톤, 꽃무늬 보타이 35만원 돌체앤가버나.



블랙 셔츠 5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라펠이 인상적인 그레이 컬러 베스트와 꽃 모양의 오브제가 달린 볼펜 겸 포켓 스케어 각각 1백만원대, 39만원 프라다.



셔츠 63만8천원 할프로렌 퍼플라벨, 체크 베스트는 재킷과 팬츠를 포함해 2백99만원 폴 스미스, 타이 10만원대 S.T. 듀폰, 깃털 부토니에 40만원대 앤드밀미스터 by 무이.



재킷 2백97만원 돌체앤가버나, 셔츠 70만원대 디올 옴므, 타이 20만원대 루이 비통, 포켓 스케어 20만원 존 로렌스 설리만 by 10 피르소 고프, 부토니에 27만원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맨.



재킷과 베스트는 팬츠를 포함해 2백99만원, 꽃무늬 셔츠 37만원 모두 폴 스미스, 도트 무늬 타이 10만원대 S.T. 듀폰, 부토니에 6만원 라피규라 by 더스튜디오케이.



엄선된 브랜드. 다양한 컬렉션. 합리적인 가격. **LEGENDARY BRANDS. ABUNDANT SELECTION. REAL SAVINGS.** Adidas, Armani Stores, Andy&Debb, Bottega Veneta, Burberry, Brunello Cucinelli, Coach, Chloé, Coleman, Dior, Diane Von Furstenberg, Fendi, Hugo Boss, Nike Factory Store, Jil Sander, Michael Kors, Oakley, Polo Ralph Lauren, Roberto Cavalli, Tory Burch, Vivienne Westwood and more at savings of 25% to 65% every day. 브랜드는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140 STORES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명품로 360 | 영동고속도로 여주 I.C. 진입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160 STORES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 자유로 금촌, 법흥리 방면 진입



PREMIUMOUTLETS.CO.KR | 1644 - 4001

SHINSEGAE • SIMON

**PREMIUM
OUTLETS®**
Shop Brilliantly

enchanted House

몸에 향수를 뿌리듯 나만의 공간에도 특별한 향이 필요하다. 리빙 피플은 방안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워 집 안 분위기를 살릴 뿐 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지친 심신까지 다독인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과 아름다운 보틀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줄 홈 프레그런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티마리아 노벨라 캔들라 프로파마 타 바닐리아** 손수 그린 금색 로고가 돋보이는 따뜻한 바닐라 향의 향초. 최상급 칼리오일과 코튼으로 만든 심지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 300ml 5만8천원. 문의 02-546-1612

딤티크 투베루스 룸 스프레이 멕시코 구근 나무에서 추출한 감각적인 월하 향의 룸 스프레이. 따스한 플로럴 계열로 방 안에 온기를 부여한다. 150ml 8만9천원. 문의 02-514-5167

프리메라 내추럴 리즈 제라늄 홀 디퓨저 100% 천연 제라늄 오일을 함유해 신선한 자연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달하는 홀 디퓨저. 스

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다. 130ml 2만원대. 문의 080-023-5454

알로라 이블라 디퓨저 섬의 꽃에서 영감을 받은 기르데니아, 피그, 튜베로즈를 배합한 디퓨저.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돋보이며 숙면을 도와주어 침실에 두고 사용하면 좋다. 473ml 19만8천원. 문의 070-7525-0318

카르미카멧 미모사 오리지널 캔들 by 레흐 아사안 허브 향을 느낄 수 있는 핸드메이드 향초. 두 병의 미모사꽃 에센셜 오일을 첨가해 방향 효과가 뛰어나다. 185g 7만6천원. 문의 02-543-6100

산티마리아 노벨라 포푸리 실크 파우치 고급스러운 향의 포푸리를 담은 실크 파우치. 휴대하기 좋은 패킷으로 자동차 방향제로도 제격이다. 40g 7만8천원. 문의 02-546-1612

까르무자아 를 프레그런스 비아 까메르 간편한 미니 사이즈로 실용성을 높인 디퓨저. 엠버, 삼나무의 따뜻한 향이 돋보인다. 100ml 12만원. 문의 02-555-5152

딤티크 34번가 아이글래스 디퓨저 모래시계를 연상케 하는 감각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디퓨저. 모래시계처럼 향수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방울져 떨어지면서 향기가 서서히 퍼지는 원리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다. 7.5ml 20만8천원. 문의 02-514-5167

조말론 센트 싸라운드 디퓨저 레드 로즈 로맨틱한 잠미 향을 방 안에 가득 채워줄 디퓨저. 세련되고 모던한 보틀 디자인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165ml 11만원. 문의 02-3440-2750

실화수 윤조지향 방향 기능은 물론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선사하는 한방 허브스틱 향초. 신선하고 맑은 향취의 솔향, 유향, 껌향, 정향을 배합해 스트레스 완화와 리프레시 효과가 뛰어나다. 210g 5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Do you dream
Le Creuset?



fall's Finest

작열하는 태양과 숨막히는 폭염으로 시달려야 했던 여름은 칙칙한 피부 톤과 거뭇거뭇한 잡티를 남기고 떠났다. 지금은 기미, 주근깨 등의 다크스팟을 집중 케어하는 트리트먼트와 맑고 깨끗한 안색으로 되돌리는 미백 에센스로 가을 화이트닝에 돌입해야 할 때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이트 에센스**인 **텐시브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집에서도 피부과 시술을 받은 듯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고농축 트리트먼트. 비타민 C 유도체와 엔도멜린™ 4 복합체에 수선화 알뿌리, 감초, 심황, 범야귀 등의 식물 활성 성분이 다크스팟에 정확하게 침투해 크기를 줄이고 윤곽을 흐릿하게 만든다. 상자를 열면 화이트닝 성분을 농축한 1ml 사이즈가 28개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에 한 개씩 한 달 동안 집중 케어할 수 있다. 28개 날개 포장, 36만원. 문의 080-332-2700

다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사틴 익스퀴짓 뉴트리션 사틴 브라이트닝 크림**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케어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브라이트닝 크림. 멜라닌 생성을 유발하는 티로시나아제의 합성을 억제하는 화이트 피오니가 색소침착이 일어난 부위의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유해 환경이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은 피부 조직을 회복하는 로즈 사틴™과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나포피아 넥타의 시너지 작용으로 매끈한 피부결과 환한 안색을 만든다. 50ml 39만원. 문의 02-3438-9631

아모레퍼시픽 라이브 화이트 멜라디피잉 스킵 코렉터 피부 깊숙이 침투한 멜라노사이트 주변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고, 고질적인 잡티의 색을 열게 만드는 스킵 코렉터. 탄력이 느껴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데, 광대뼈나 눈 밑 등 잡티가 고인되는 부위에 약 1분간 흡수시키고, 붓을 직각으로 세워 30초간 두드리면 화이트닝 성분 흡수율이 배가 된다. 7ml 14만5천원. 문의 080-023-5454

SK-II 화이트닝 스킵 스페셜리스트 최근에 눈에 띄기 시작한 잡티는 물론 오래된 기미와 주근깨, 심지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하단 스킵까지 케어하는 화이트닝 에센스. 강력한 루트 콤플렉스 성분이 다크스팟의 기원을 살살 달래 뿌리째 뽑아낸다. 얼굴과 목 전체에 펴 바르고, 스킵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2~3번 덧발라 흡수시킬 것. 30ml 14만원. 문의 080-023-3333

설화수 자정미백크림 빛이나 열로 자극해진 피부 톤을 환하게 밝혀주는 한방 미백 크림. 피부의 노란 기를 개선하는 백화사설초 성분과 안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삼백미 성분이 피부 조직을 촘촘하게 매워 환한 안색으로 되돌린다. 쫄쫄한 크림 텍스처는 피부에 걸들지 않고 촉촉함을 남겨 윤기가 도는 피부로 만든다. 50ml 13만5천원. 문의 080-023-5454

랑콤 블랑 엑스퍼트 크리스탈™ 에센스 평소 칙칙한 안색과 고질적인 색소침착으로 고민하는 아시아 여성에게 최적화된 화이트닝 에센스. 천연 보습 인자가 풍부한 식물 성분인 쿡 추출물과 불포화지방산, 해바라기 추출물로 구성된 '다키티탈 복합체™'와 비타민 C보다 안정적이며 '액티브 P 성분'의 이중 화이트닝 작용으로 피부 광채를 되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30ml 14만8천원. 문의 080-022-3332

사슬리 휘트-블랑 울트라 라이트닝 마스크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노폐물과 묵은 각질, 피지 등의 불순물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보습을 주는 화이트닝 마스크. 소량으로도 풍부한 기미가 나는 신뜻한 젤 크림 텍스처는 지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울트라 오일에서 추출한 휘트 스킵과 시아버터, 에센셜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안 후에도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다. 60ml 13만5천원. 문의 080-549-0216

라 메르 화이트닝 에센스 인텐스 화이트닝 제품이 건조하거나 자극적이라는 여성의 의견을 반영해 보습력과 촉촉한 마무리에 중점을 둔 화이트닝 에센스. 화이트닝 퍼먼트 성분이 멜라닌의 확산을 물리치고 생성 자체를 초기에 차단해 맑고 깨끗한 안색을 만든다. 흐트러진 얼굴 라인을 잡아 주고 주름을 완화하는 안티에이징 기능을 겸비했다. 30ml 37만원. 문의 02-3440-2653

에스티 로더 이븐 스키톤 일루미네이터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고르게 정돈해 광채가 올라오는 듯한 안색을 만드는 세럼. 브랜드의 독자적인 성분 트리플-윌라 테라놀로지가 단기간의 사용으로도 피부 톤이 환해지는 것을 돕는다. 강력한 안티-스팟 성분과 항산화제, 진정 작용을 돕는 성분이 3단계로 작용하는 트리플-액션 콤플렉스는 피부 안팎으로 잡티를 케어하며, 미세한 털이 느껴지는 실카한 텍스처는 자선감 있는 인 얼굴을 만든다. 50ml 17만원. 문의 02-3440-2772

겔랑 블랑 드 펄 퓨전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10일 동안 다크스팟을 케어하는 집중 트리트먼트. 잡티와 기미 등의 색소침착으로 불규칙한 피부 톤을 화사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펄(P.E.A.R.L) 콤플렉스 농도가 펄 화이트닝 에센스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멜라닌에 신속하게 녹아들어 강력한 화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밀폐된 카트리지는 사용 전에 열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4ml 15만9천원. 문의 02-3438-9627 에디터 **이예진**



“ 왜 그렇게 궁금하죠?
내가 피부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

장미희, 피부에 100% 캐비아를 투자하다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어도 장미희의 얼굴이 여전히 100%로 빛나는 건
그녀는 언제나 피부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철갑상어에서 채취한 최상의 블랙캐비아로 세포 속부터 생기와 탄력을 채워주는 르페르
를 한결같은 장미희의 피부처럼, 당신의 피부에도 이제 100% 캐비아 추출물 르페르를 투자하세요



REPÈRE

The Prestige Anti-aging

• 제조: 코스맥스(주) 캐비아 안티에이징 연구단 • 판매: CJ오쇼핑(문의: 080-000-8000)

best hair Secret

매번 헤어 스타일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모발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머리술이나 모발 굵기에 따라 남성들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런던 어딤 선 바운시 왁스 짧은 모발용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헤어스타일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제작한 디자인 왁스 크림이다. 유통가가 적고 텍스처가 부드러워 뒷머리에 부담이 없다. 물기 없이 완전히 마른 모발에 발라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 디자인이 감각적이다. 150ml 2만원대. 문의 080-099-5000

케라스타즈 볼륨액티브 앰플리파이 무스 기늘고 술이 적은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는 무스. 음이온 중합체가 모발을 감싸며 두께감을 높여줘 머리술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앰플리 사용 복합체가 적용해 모발 전체에 볼륨감을 주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한다. 또 비타 사용 복합체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건강하게 가꿔준다. 드라이어의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것도 장점이다. 150ml 3만원대. 문의 080-099-5000

리네쉬에르 니푸리아 드라이 샴푸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샴푸. 피지에 의한 모발의 번들거림과 짙은 냄새를 제거하고 볼륨 효과까지 있어서 두피에 유분과 피지가 많은 편이라면 특히 유용하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제품 용기를 흔들어서 후 모발 뿌리부터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분사하고 2분 후 미른 타월이나 브러시를 이용해 파우더를 제거하면 된다. 단, 젖은 모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5ml 2만8천원, 150ml 3만8천원. 문의 02-543-7685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슈퍼 스타일 하이퍼존 호라이즌 픽스 폼스 타 레디가 가기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찰리 르 맨뉴와 협업해 제작한 슈퍼 스타일 하이퍼존 라인. 그중 호라이즌 픽스는 모발 뿌리를 효과적으로 고정해주는 스프레이로 풍성한 볼륨을 연출해준다. 특히 가리모는 타입의 모발에는 뿌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사한 다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볍게 문질러주면 효과적으로 고정되며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때도 유용하다. 250ml 2만원대. 문의 080-099-5000

오리진스 진저 업 아로마틱 샴푸 술이 적은 모발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 모발의 수소이온 자수(pH)의 균형을 유지해 모발의 산화를 예방하며 샴푸 시 은은한 진저 향을 느낄 수 있다. 풍부한 거품이 모발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며 성분이 순한 편이라 두피에 부담이 적다. 부스스하거나 뜨는 모발에 적당한 볼륨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200ml 2만원대. 문의 02-3440-2783

존 마스터스 오가닉스 100% 아르간 오일 모로코 아르간 숲에서 나는 100% 아르간 오일로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농 제품을 인증 받았다. 비타민 E, 오메가 6가 풍부하며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 촉촉하게 해주고 차분한 머릿결을 연출해준다. 100% 아르간 오일 2~3방울을 린스에 섞어 사용하면 된다.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59ml 6만2천원. 문의 02-566-9803

랩시리즈 루트 파워 리스터리브 스타일 왁스 탈모가 고민이거나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제격.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동시에 두피 트리트먼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곰살머리거나 밖으로

뻗치는 모발이라면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왁스를 소량 덜어 발라주면 차분하게 정돈된다. 50ml 3만3천원. 문의 02-3440-2774

라쉬빅 샴푸 촉촉 차지고 늘어서는 모발용 샴푸. 레몬오렌지, 라임 성분이 들어 있어 향기가 상쾌하고 청량감이 느껴진다. 주요 성분은 바닷소금으로 모발의 유분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기존 모발보다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두피 딥 클렌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1린스 정도 때내어 두피에 골고루 바른 후 미온수를 조금씩 보태면서 마사지한다. 330g 2만8천원. 문의 1644-2357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손상된 모발을 회복·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 제품. 모로코 남서 지역에서 자생하는 아르간 오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젖은 모발과 미른 모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염색이나 펴를 했을 때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켜주는 동시에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적당량을 손에 덜어 마사지하듯 모발에 발라준다. 100ml 6만8천원. 문의 1666-5125 진행 민상원 에디터 배미진



1년 이상
묶어두기
애매해서

3개월째
통장에서 잠자는
아까운 여유자금이 있다



그 여유자금, 놀게 하지마시고 프라이어리티뱅킹하세요

PRIORITY
Banking

100만원 이상의 생활자금이라면 단 하루만 넣어도 3% 금리를 주는 마이프리미엄통장
(당좌예, 연회고, 세전, 조건충족사)

4,000만원 이상의 고액자금이라면 단 하루만 넣어도 3.2% 금리를 주는 하이엔드통장
(당좌예, 연회고, 세전, 조건충족사)

11월 30일까지, 2달간 무려 4.5% 특별금리를 드리는 두드림2U통장
(기간예, 연회고, 세전) 2012.11.30 까지 신규가입하시는 모든 고객께 가입일자 기준 약리일부터 2개월 동안 특별 금리 제공

당신의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 당신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혜택 | 당신의 더 큰 투자기회를 위한 글로벌 전문성



프라이어리티뱅킹 콜센터 1577-1599
sc.co.kr/standardchartered.co.kr

스탠다드차타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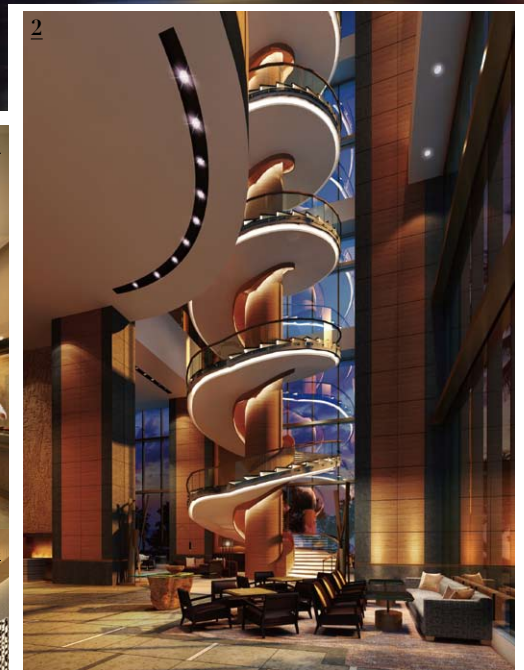
이 예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두드림2U통장은 예치건별로 30일간은 연 0.01%(세전), 31일부터 180일까지는 연 3.8%(세전), 181일부터는 연3.0%(세전)의 금리가 적용되며, 인출 시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 당일 중 입금과 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입출금 거래에 대해 선입선출이 적용됩니다. / 특별금리 제공은 2012년 9월 24일~11월30일까지 두드림2U통장 신규 계좌에 한하며, 특별금리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마이프리미엄통장은 잔액 구간별로 1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0.1%(세전), 100만원초과 잔액에 대해 건당 150만원 이상 입금 시 연 2.0%(세전) / 건당 150만원 이상 입금 거래를 충족하고 당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계좌로 등록 후 청구액 50만원 이상 또는 건당 150만원 이상 입금 거래를 충족하고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실적 이 있을 시 연 2.5%(세전) / 건당 150만원 이상 입금 거래, 당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계좌 등록 후 청구액 50만원 이상 실적 그리고, 자동이체 3건 이체 실적 모두 충족 시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이엔드통장은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0.01%,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2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예시 : 계좌 잔액이 1억원인 경우, 4천만원에 대해서는 0.01%가, 6천만원에 대해서는 3.2%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CBK 준법감사인 심사필 No.기294-2012.10.11~2013.10.10

smart Luxury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출현했다. 힐튼 월드와이드의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인 콘래드 호텔이 금융허브인 여의도의 중심에 화려하게 등지를 뜬 것이다. 칼날같이 빈틈없는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세련된 감각으로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스마트 럭셔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콘래드 서울.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주겠다는 이 특별한 공간의 면면이 궁금하다.

한국의 웰스트리트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서울에 그 우아하면서도 기백 넘치는 자태를 드러낸다. 전 세계를 통틀어 20여 개에 불과하다는 힐튼 그룹의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인 콘래드 호텔(Conrad Hotel)이 여의도에 11월 12일 문을 여는 것이다. 여의도 비즈니스 지구의 떠오르는 명소인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에 자리 잡은 이 38층짜리 특급 호텔은 현대적인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정받는 콘래드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그야말로 격이 다른 진정한 럭셔리 호텔 문화를 선보이겠다는 당당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한강의 빼어난 경치와 유려하게 펼쳐진 도시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이 매력적인 이 호텔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버스 환승 센터를 끼고 있어 이동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여의도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IFC몰까지 옆에 두고 있어 풍부한 오락 요소까지 품고 있다. 콘래드 서울이 야심 차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스마트 럭셔리(smart luxury).'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서비스(flawless service), 유연한 커넥션(connection), 한국적인 세계화(worldly style) 등 최고의 특급 호텔다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휴식처럼 편안하면서도 고객 개개인의 가치에 맞는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8㎡를 기본으로 하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넓은 객실 인프라를 자랑하는 콘래드는 애플 기반의 IPTV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보유한 모든 파일을 TV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세상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천후 '디지털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체육관과 천창과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태양광을 만끽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아름다운 실내수영장 등을 거느린 특급 피트니스 클럽 '펄스에이트(Pulse8)'도 콘래드 서울의 자부심이다. 8·9층을 점유해 근사한 전망을 갖춘 이 피트니스 클럽은 골프 시설만 이용하는 고객은 굳이 다른 층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로커룸을 쓸 수 있고, 운동 전후로 스파를 즐길 경우에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한 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등 출중한 동선의 미학을 뽐낸다. 또 37층에서 한강과 도시 전경을 360도 전망으로 감상할 수 있는 '37그릴앤바'를 비롯한 독특한 콘셉트의 수준급 레스토랑과 바는 물론이고 연회장과 폐백실, 대기실, 예약실까지 한곳에 모여 있는 워딩 전용 층(5층) 등 그야말로 '빈틈없는' 서비스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저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고 콘래드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차별성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생각에서 콘래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호텔리어들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창조적인 도전과 혁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신념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스마트 럭셔리'로 대변되는 콘래드의 가치도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서 콘래드 서울의 신입사원 10명에게 6개월간의 싱가포르 연수 기회도 부여했다고 한다. 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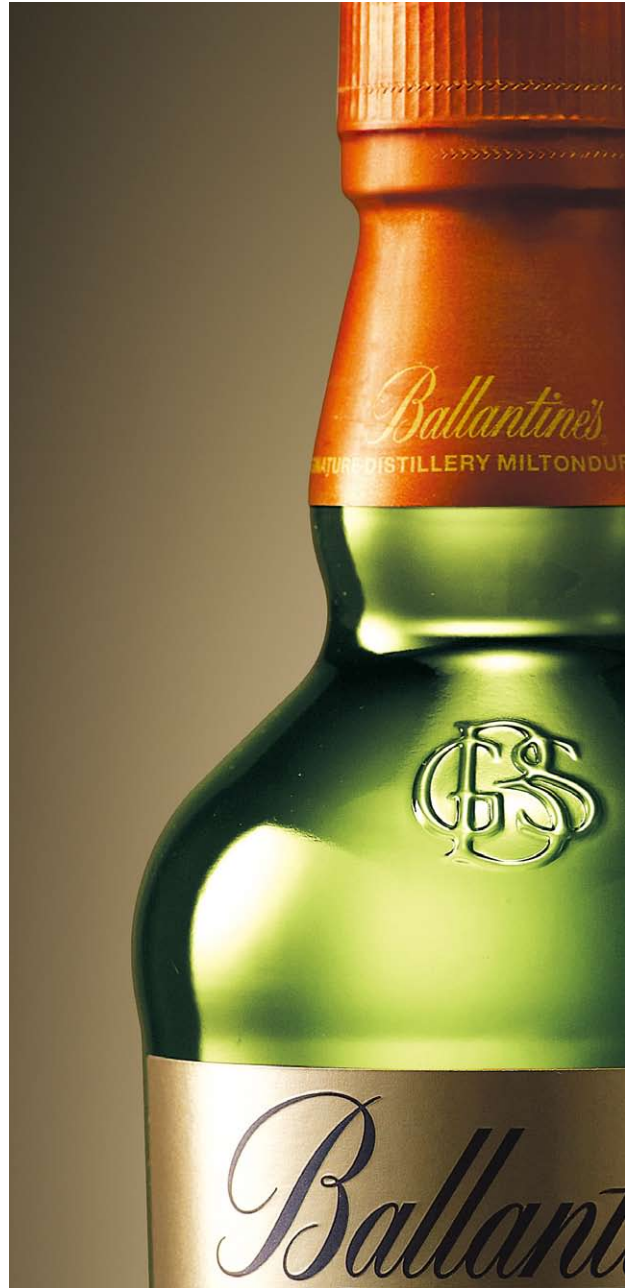
1 여의도 비즈니스 지구에 들어선 38층짜리 특급 호텔 콘래드 서울은 한강이 보이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지하철과 버스 환승 센터를 인근에 뒤 접근성과 이동성도 뛰어나다. 2 콘래드 서울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면 눈길을 사로잡는 나선형 계단의 유려한 맵시. 3 2층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트리오(Atrio)는 시원하게 뿜린 천창과 웅망의 느낌이 은은하게 묻어내는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4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구비한 넓은 객실에는 욕실용 LCD TV와 네스프레소 머신 등이 갖춰져 있으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흐른다. 5 호르는 강물과 도시 전경을 360도 전망으로 감상할 수 있는 37층의 '37그릴앤바'. 6 천창과 유리창을 통해 태양광을 누릴 수 있는 25m 길이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콘래드 서울의 피트니스 클럽은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넘친다.

바로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콘래드의 문화를 전파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와 경험을 소비하는 '체험 경제' 시대의 도래를 부르짖는 제임스 길모어와 조셉 파인은 21세기의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강하게 이끄는 힘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특히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에 각별한 배려와 진심으로 봉사하는 서비스에 사람들은 '특별함의 진정성'을 느낀다는 주장에 꼭 들어맞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호텔 문화일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객들은 콘래드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있는 '가치 그 자체'라며 "고객 개개인에게 고유의 가치에 맞는 완벽한 서비스라는 경험을 선사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호텔 문화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콘래드 서울 총지배인 닐스 아르네 슈로더의 포부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나라를 펼칠지 궁금해진다. 에디터 **고성연**

객실 정보 • 50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화려하고 넓은 434개 객실(48㎡ 기본) • 오픈 플랜 욕실과 럭셔리 배스 용품(아로마테라피 어쏘시에이트 등) • 애플 기반의 인프라(애플의 Direct Stream 서비스 제공) • 전 객실 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 레인 샤워와 프리스탠딩 욕조 • 전 욕실 LCD TV 설치.

피트니스 • 테크노지, 프레코 등 최첨단 장비를 2백30여 종 구비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체력장 • 395㎡의 넓은 공간에 마련된 9개의 흡을 갖춘 럭셔리 스파(7개의 싱글 트리트먼트 룸) •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8·9층) 전용 엘리베이터 • 7개의 골프 연습장과 태양광이 들어오는 실내수영장.

펄스에이트 특별 청담 회원 모집 콘래드 서울의 피트니스 클럽 펄스에이트(Pulse8)는 오픈 기념으로 청담 회원들에게 힐튼 월드와이드 브랜드 호텔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힐튼 HHonors 골드 엘리트 멤버십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 02-6137-7000



발렌타인 17년, 새로운 스타일을 입다

발렌타인 위스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고혹적인 부드러움, 그기저에는 곳곳하게 전통을 수호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혁신을 추구해온 밀턴더프 증류소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 천혜의 땅에서 빚어진 밀턴더프 몰트의 따스한 감각을 중심으로 새롭게 완성된 블렌딩의 미학이 영롱한 오렌지 골드 컬러로 빛나는 미각의 결정체를 또 하나 탄생시켰다. 발렌타인 시그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발렌타인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를 빚어내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네 지역 중 하나인 스페이스사이드. 그안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갖춘 황금 보리와 블랙번 강의 맑고 풍요로운 강물 등 천혜의 자원을 고루 지녀 축복의 땅으로 통하는 '스코틀랜드의 정원에 발렌타인의 세 번째 시그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 완성된 밀턴더프(Miltonduff) 증류소가 자리하고 있다. 1824년 개설된 밀턴더프 증류소는 가장 최신화된 블렌딩 및 보틀링 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도 장인들이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는 소중한 전통을 의연하게 지속해온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또 지난 2백여 년간 발렌타인 위스키가 자랑하는 균형 잡힌 부드러움의 미학을 구현해온 장소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고 특별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 번째 시그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전설적인 몰트위스키의 명성을 혁신적으로 계승하면서 발렌타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밀턴더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하는 블렌딩의 미학으로 칭송받아온 발렌타인, 그 세 번째 시그너처 스타일인 밀턴더프 에디션에서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의 매력을 유감없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매혹적인 부드러움과 크림함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밀턴더프 몰트의 특색을 강조하여 블렌딩한 이번 에디션은 우아하고 따스한 느낌의 위스키를 선호하는 애호가들에게 적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블렌딩 노하우가 이뤄낸 탁월한 풍미는 싱글 몰트위스키 애호가들의 미각을 만족시키기도 충분하다는 자부심이 반영된 작품이다. 향긋한 꽃 내음과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의 느낌, 풍성한 배즙의 향취, 계피의 스파이시한 맛이 근사하게 어우러진 미각적 바탕에 밀턴더프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절묘하게 스며든, 흡입을 데 없이 빼어난 조화는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또 한 번 블렌딩의 신세계로 초대된 듯한 황홀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또 프리미엄 미네랄워터와 블렌딩해 음미하면 한층 깊은 향과 여운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귀뜸이다. 지금까지 단 5명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절도 있게 이끌어져왔기에 그 전통과 가치가 더욱더 빛나는 발렌타인은 글렌베기, 스카파 그리고 밀턴더프까지 이어지는 시그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블렌딩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밀턴더프 에디션 출시를 맞아, 국내 최고급 호텔의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의 향연을 명성 높은 아티스트가 제작한 세련된 감각의 글라스까지 곁들여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파인 다이닝 코스'는 발렌타인을 참신한 스타일로 음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오직 발렌타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색다른 풍미를 즐겨보고 싶다면 밀턴더프 에디션의 고혹적인 매력을 주목할 만하다. 아절하도록 신선한 감동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brilliant Days

스와로브스키의 뮤즈 이효리가 '2012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통해 홀리데이 파티 퀸으로 거듭났다. 리본 모티브 브로치와 화려한 상들리에를 연상케 하는 귀고리, 로큰롤에서 영감을 얻은 블랙 메탈 링까지. 연말 옷차림에 눈부신 빛을 더해줄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마스 주얼리 컬렉션을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Sparkling Christmas with Swarovski

가까운 지인과의 모임이나 파티가 잦은 연말에는 옷차림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옷이나 액세서리로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어진다. 화려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싶지만 어울리지 않을까 고민이 되거나 변신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가장 멋스럽다. 존재감 있는 주얼리 몇 개만 갖고 있어도 변화무쌍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이패션에서도 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주얼리와 같은 소품을 활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스와로브스키는 매 시즌 연말 파티와 크리스마스를 위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에는 'Sparkling Christmas with Swarovski'라는 테마 아래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심벌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볼륨감이 돋보이는 리본 모티브 이어링과 네크리스,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형상화한 별 모티브 네크리스와 가느다란 팔찌, 트라이앵글 형태의 볼드한 뱅글과 네크리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트라이앵글 모티브의 '스펙트럴(spectral)' 라인은 메탈 케이지 안에 크리스탈을 담은 정교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어느 장소,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눈부신 빛을 발산한다. 트라이앵글이 여러 개 달린 초커 형태의 볼드한 네크리스와 가는 체인에 펜던트가 달린 네크리스, 손목에 딱 붙는 뱅글을 함께 착용하면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더욱 화려하고 여성스럽게 연출하고 싶다면 '시에나(sienna)' 라인을 선택하면 좋다. 크리스탈과 블랙 메탈로 무늬를 만든 필리그리(filigree) 디테일로 극명한 대비 효과를 주며, 다이아몬드 실루엣은 최신 트렌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스와로브스키의 2012 F/W 콘셉트인 룩 시크 테마를 가장 잘 반영한 라인이기도 하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요시오카 도쿠진(Yoshioka

Tokujin)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레이크 오브 shimmer'는 절제된 디자인으로 최대한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완성했다. 동그란 원형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번갈아 세팅한 일자형의 이어링과 가느다란 네크리스는 도회적인 현대 여성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듯. 모든 컬렉션에는 스와로브스키만의 독창적인 포인트아지(Pointiage®) 기술을 적용해 반짝임과 광채를 극대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홀리데이 파티 퀸, 뮤즈 이효리

2012 F/W 스와로브스키의 뮤즈로 선정된 이효리는 스완 데이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룩 시크 컬렉션, 크리스마스 컬렉션까지 관능적이면서도 세련된 비주얼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크리스마스 컬렉션 주얼리 화보 촬영을 통해서도 패션스타의 면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듯. 튜브톱 드레스와 등이 흰치러나는 백리스(backless) 드레스에 상들리에 이어링과 네크리스를 매치해 찬사를 이끌어냈다. 원솔더 드레스에 리본 브로치로 로맨틱한 무드를 더하거나 체인 팔찌와 네크리스를 여러 개 겹친 스타일링을 참고해도 좋을 듯. 주얼리 레이아웃을 할 때는 펜던트가 큰 네크리스와 초커형 네크리스를 함께 연출하거나 가는 체인과 볼드한 참 주얼리를 함께 착용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 주얼리를 믹스 매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반지를 여러 개 겹친 스파이럴 링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듯.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주얼리를 완성하고 싶다면 커스터마이징 라인을 추천한다. 스와로브스키만의 다양한 비즈와 참으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 특별한 날은 물론 자신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로 제격일 것이다. 문의 02-3395-9096 에디터 **이예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트 모티브의 참 네크리스 18만3천원, 앙증맞은 별이 달려 있는 스타라이트 네크리스 21만원, 트라이앵글 모티브의 스펙트럴 롱 네크리스 29만원, 딥 레드 톤의 시암 크리스탈 장식의 셀라 네크리스 25만원, 크리스탈과 다이아몬드 실루엣의 블랙 메탈 소재 시에나 네크리스 23만원, 트라이앵글 모티브의 스펙트럴 컷프 26만원, 화려한 크리스탈 장식의 클러치 파우치 1백50만원, 상들리에를 연상케 하는 스타라이트 귀고리 27만원, 볼륨감이 체인 장식의 돋보이는 셀라 네크리스 46만원, 일자형의 레이크 오브 shimmer 귀고리 20만3천원, 클리어 크리스탈을 파베 세팅한 스톤 링과 원형 장식 레이크 오브 shimmer, 여러 개의 링을 겹친 스파이럴 링은 각각 25만원, 21만5천원, 26만원, 가는 체인을 따라 별을 장식한 스타라이트 브레이슬릿 16만3천원, 작은 팔각형에 크리스탈을 번갈아 세팅한 레이크 오브 shimmer 브레이슬릿 34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1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레이크 오브 shimmer 라인을 적용한 이효리. 2 여성스러운 리본 모티브 브로치. 3 클리어 크리스탈을 출출하게 파베 세팅한 귀고리. 4 클래식한 사랑을 상징하는 지물시 참네크리스.



Beige atmosphere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을 위한 브랜드 르베이지가 한남동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패션뿐만 아니라 르베이지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는 가구, 패브릭, 오브제 등의 리빙 브랜드 '메종 르베이지'와 함께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매월 전시 공간이 달라지며 문화와 감성을 충족시키는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르베이지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요즘 가장 주목받는 스타일리시한 지역은 한남동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화적인 감성과 현대적 트렌드가 공존하는 이곳은 청담동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멋과 문화에 민감한 트렌드세터를 불러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과 아기자기한 숨이 즐비했던 한남동에 최근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앞다퉈 들어서는 것. 액세서리 멀티스토어 코브누아(Courbe Noir), 컨템퍼러리 패션 편집 숍 비이커(Beaker) 등도 동지를 틀어 한남동 일대를 패션 거리로 만드는 데 힘을 실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지난 9월 오픈한 머추어 캐리터 브랜드 르베이지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우아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많은 사랑을 받는 르베이지의 패션뿐만 아니라 르베이지의 감성과 컬러를 담은 메종 르베이지를 만날 수 있기에 특별함을 더한다. 메종 르베이지에는 가구, 베딩, 조명, 오브제 등의 리빙 소품을 비롯해 마감도의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매력적인 쇼펍 플레이스로는 물론 문화 공간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르베이지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축하하기 위한 오프닝 파티에서는 장미희, 황신혜, 정혜영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케이터링에는 메종 르베이지에서 판매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포크, 종이접시 등의 집기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패션 브랜드에서 자신의 DNA를 반영한 리빙 브랜드를 론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해외 패션 하우스만이 가구나 패브릭으로 라인을 확장하는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리빙 아이템은 호응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례적으로 르베이지가 리빙 브랜드 메종 르베이지를 론칭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우아하고 차분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로 워낙 잘 알려진 브랜드라 리빙 아이템을 선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완벽한 조우라는 생각과 함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럭셔리하고 편안한 침구와 소파, 패브릭의 프린트, 원목 가구, 인락한 조명을 통해 르베이지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를테면 이번 시즌 르베이지의 키 아이템으로 선보인 파이톤 프린트 드레스의 패턴이나 오리엔탈 무드를 가미한 자카드 원단을 침구나 소파의 커버, 패브릭에 활용하는 식이다. 컬러 역시 메종 르베이지의 콘셉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컬러리스트가 주력하는 메인 컬러를 중심으로 포인트 컬러를 더해 매장 내부를 꾸민다. 메종 르베이지는 가족과 같은 원단은 품질이 우수한 이탈리아에서, 원목 가구나 디자인 오브제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콘셉트에 맞는 가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침구는 메종 르베이지에서 직접 디자인해 이탈리아에 의뢰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의 침대보다 높이를 낮추고 플랫폼 부분을 넓게 디자인했으며, 최상급의 누백 가죽만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누백은 동물의 상처나 흠집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원피만을 사용한다고. 따뜻하면서도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하는 원목 가구도 주목할 만하다. 부드러운 월넛과 그레이 오크 두 가지 컬러로 선보이는 티 테이블과 라운지 의자가 대표적이고, 디자이너 가구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스톨은 보기에만 예쁜 것이 아니라 앉았을 때의 편안함도 놓치지 않았다. 그 밖에 2007년 유네스코 어워드의 수상 작품이기도 한 장식용 오브제를 비롯해 독일에서 수입한 유니크한 화병, 핀란드에서 수입한 카펫,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 황마로 제작한 쿠션 등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차별화된 소품과 오브제가 준비되어 있다. 한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11월 한 달간 이강호 작가의 도예전이 열린다. 분청 기법과 옹기의 실용성을 접목시킨 작품으로 전통 도예의 현대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을 넘어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난 르베이지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듯하다. 문의 02-749-5667 에디터 이예진



1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이 돋보이는 한남동의 르베이지 플래그십 스토어. 2 1층에서는 르베이지의 패션 및 액세서리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3 지하 1층에 오픈한 메종 르베이지에서는 베딩을 비롯해 가구, 패브릭, 오브제 등 다양한 리빙 소품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엔 르베이지의 파이톤 프린트를 침구 커버에 적용했으며, 침대에는 최상급 누백만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4 원목 가구와 가죽 소파, 티 테이블로 포근함과 인락함이 돋보이는 거실을 연출했다. 5 독특한 모티브의 조명이 있으면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유니크한 오브제를 수입한다.



Autumn Sonata

지금 막 빛에서 깨어난 듯 섬세하고
눈부신 여배우 조여정의 아름다운 얼굴이
하이 주얼리 판타지와 만났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oon

카키 컬러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말프로렌 컬렉션.
하이 주얼리 페더
네크리스와 링
가격 미정 타사키.



우아한 패턴의 실크 원피스
7백만원대 디올 꾸뛰르.
핑크 스트랩 힐
39만9천원 나무하나.



핑크 컬러 러플 드레스
가격 미정 마르케샤 by
엘리자베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매직 알함브라
비트윈 더 핑거 링 2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레이스 디테일 버건디 시폰
드레스 가격 미정 **나나리찌**.
왼팔에 착용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오른팔에 착용한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볼가리**.

그레이 퍼블레로 가격미정
에스까다 스포츠,
뱀 모티브 다이아몬드 카링
8천만원대 부쉐론.





그레이 블라우스 2백만원대,
핑크 티어드 스커트 1천만원대
모두 **디올 꾸뛰르**. 진주를
심플하게 세팅한 밸런스 네크리스
1천2백만원대, 오른손에
착용한 밸런스 링 2백70만원대,
왼손 엄지손가락에 착용한 데인저링
2백70만원대 모두 **타사키**.



골드 셔츠 1백35만원,
스커트 96만원 모두
모스키노, 라일라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아몬드 릴라스
네크리스 가격 미정, 마줄리
다이아몬드 워치 7천만원대
모두 부쉐르.

헤어 채수훈
메이크업 최시노
네일 최지숙
스타일리스트 고민정
스타일 디렉터 심우찬
에디터 배미진

핑크 컬러 새틴 드레스 5백만원대
캠블리라인 컬렉션. 짧은 길이감의
빈티지 알함브라 네크리스 9백만원대,
나무 소재를 세팅한 롱 빈티지 알함브라
레터우드 네크리스 2천만원대,
원손에 착용한 알함브라 링
가격 미정 모두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부쉐론 02-543-6523
엘리자베스 02-517-8050
니나리찌 02-6905-3447
볼가리 02-2056-0172
다울 꾸뛰르 02-518-0277
에스까다 스포츠 02-517-7332
타사키 02-3461-5558
랄프로렌 컬렉션 02-545-8200
모스키노 02-2118-6138
나무하나 02-3442-7567
캠블리라인 컬렉션 02-6905-3576

Powerful moisture pact

겨울로 접어들면 특히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다. 겨울에 비친 푸석해진 피부를 보면 그동안 마음에 든다고 손에 꼽던 제품도 무르고 싶은 심정이다. 촉촉한 파우더 팩트와 파운데이션이 절실한 시기, 베네피트의 헬로 플로리스를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여배우 팩트, 수분 팩트

찬 바람이 부다. 세안을 하고 나오면 토너를 바르기도 전에 피부가 땅긴다. 침실 화장대에 있던 토너와 로션을 욕실로 옮겨 두는 것은 물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는 단계도, 양도 모두 늘어난다.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바르고 나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걸돈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건조함을 막아줄 스킨 케어를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스킨케어의 촉촉함을 그대로 흡수하며 밀림이 없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필수 요소는 바로 '수분감'인데, 촉촉한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한다면 단연 베네피트의 헬로 플로리스 SPF15 팩트다. 일반적으로 팩트는 밀린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가을과 겨울에는 사용을 꺼리는 여성들도 많지만 수분 파우더 팩트로 불리는 헬로 플로리스 팩트는 '촉촉한 텍스처'를 가진 팩트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파운데이션의 촉촉한 커버력과 밀착력, 파우더의 깔끔한 지속력을 동시에 갖춘 모이스처 팩트인 것. 수많은 여성들이 파우더 팩트를 사용하며 아쉬웠던, 피부가 하얗게 들뜨고 건조함 때문에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단점을 '수분'이라는 비장의 무기로 모두 해결한 것이다. 커버력이 뛰어나면서도 가볍고, 촉촉하다. 마치 좋은 점만 나열해놓은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2009년 5월 출시 이후 연간 누계 판매량이 거의 30만 개에 달하는 놀라운 기록으로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의 촉촉함과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여배우들이 증명했는데, 얼마 전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배우와의 열애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여배우는 직접 매장에 들러 2호 페탈 컬러를 구매했고, 팜파탈 이미지로 유명한 중년 배우 역시 드라마 속에서 이 제품을 끊임없이 들고 나와 검색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다. 물론 이 두 여배우는 이 제품의 전속 모델도 아니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단지 뜨거운 조명 아래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뿐인데, 화장품 선택에 까다로운 여배우들이 직접 선택한 제품이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라 믿어도 좋겠다.

촉촉함 그 자체, 헬로 플로리스

실제로 3개월 동안 꾸준히 헬로 플로리스 팩트를 사용해온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에게 더 리얼한 사용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좋다고 꼽은 점은 무엇보다 '촉촉함과 자연스러운 색감'이었다. 보통 수입 브랜드의 파우더 팩트가 색상이 지나치게 밝아 들뜬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아시아인 전용으로 나온 색상 덕분인지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평. 스펀지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촉촉함이 느껴져 손으로 피부를 자주 만져볼 정도. 조명이 어두운 화장실이나 드레스룸에서 메이크업을 수정한 후 밖으로 나오더라도 자연스러운 색감 덕에 급하게 화장을 고친 느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러 번 덧발라도 주름이 도드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마무리되어서 겨울에 접어들어 지금까지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를 들려주었다.

파우더 팩트는 윤기 있는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미세한 필이 들어 있는 베이스 제품을 바른 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헬로 플로리스 팩트는 이러한 필 베이스 제품과 밀착력이 뛰어난 편이다. 필의 광택을 파우더가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것. 이때 잡티 없는 커버력 있는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스펀지를, 자연스러운 광택을 원한다면 브러시를 사용하면 좋다. 더욱 내추럴한 느낌을 원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위에 바로 발라도 좋다. 만일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날 자연스럽지만 신경 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다면 다크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헬로 플로리스 옥시전 와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소량 사용한 후 헬로 플로리스 팩트를 브러시를 이용해 터치해주면 된다. 자연스러운 피부 덕분에 아이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해도 전혀 과장되어 보이지 않는다.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는 민낫보다는 딱 원하는 만큼 커버하는 피부 표현을 원할 때, 건조함을 잡아줄 촉촉한 메이크업 제품이 필요하다면 베네피트의 헬로 플로리스 팩트와 헬로 플로리스 옥시전 와우 파운데이션이 좋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80-001-2363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헬로 플로리스 옥시전 와우 SPF25 PA+++ 30ml 5만5천원. 헬로 플로리스 SPF15 7g 5만5천원.



Balancing care

계절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혹사당하는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울겨울, 푹 잔 듯 생기 있는 피부를 가꾸고 싶다면 흐트러진 피부 리듬을 최적화해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과 함께 고귀한 자작나무 수액이 전하는 힐링 에너지를 느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흐트러진 피부 리듬을 되살리는 자작나무의 힐링 에너지

건조함이 엄습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기습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조하고 쌀쌀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고갈시켜 피부를 메마르게 한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는 물론 자외선, 환경오염,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흐트러지는 피부 컨디션은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피부 고유의 리듬에서 그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각질층이 생기는 피부 턴오버 과정, 유수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피지 분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 피부 고유의 리듬이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깨지면 이런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의 주원인이 되는 것.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피부 리듬과 노화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피부에 존재하는 생체시계 단백질인 Bmal1의 존재를 규명해냈다. 이는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피부 리듬을 케어하는 요소로 이를 제거할 때 활성산소 증가, 세포 수명 감소, 피부 장벽 약화 등 피부 노화의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아모레퍼시픽은 Bmal1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인 밸런사이클 콤플렉스™를 개발, '올 데이 밸런싱 케어 세럼(All Day Balancing Care Serum, 이하 ABC 세럼)'에 담았다. 밸런사이클 콤플렉스™는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자작나무 수액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머스크멜로 추출물로 구성된 ABC 세럼의 핵심 성분. 특히 예로부터 '생명의 물'로 불려온 자작나무 수액은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보습력과 흐트러진 피부 리듬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력으로 4월 20일경인 곡우 전후에 단 10일 동안에만 채취하는 자작나무 수액을 사용하는데, 이는 나무 한 그루마다 손으로 일일이 햇빛 가리개를 하고 정성스럽게 채취할 만큼 고귀한 성분이다. 여기에 녹차 세포수, 송이, 인삼 등의 10가지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을 더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해 하루 종일 윤기가 도는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바꿔준다.

시에나 밀러도 감동한 ABC 세럼의 부드럽고 빠른 흡수력

'시에나 밀러 세럼', '피부 리듬 세럼', '필수 세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출시 5개월 만에 아모레퍼시픽의 세럼류 중 판매율 1위를 기록한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은 기초 케어 가장 첫 단계에 발라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기초 세럼이다. 부스팅 유효 성분이 인간의 세포 구조와 흡사하게 이루어져 피부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큰 장점. 또 피부를 청결하게 정돈하고 불필요한 피지를 제거해 다음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드높이는 역할을 한다. 끈적임 없는 산뜻하고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고 상쾌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그 위에 세럼이나 크림을 발라도 걸들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다. 탁월한 각질 케어 효과와 뛰어난 수분 공급력으로 4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40ml 14만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아모레퍼시픽 11월 리미티드 에디션

흐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피부 리듬을 바로잡아줄 ABC 세럼과 함께 세럼의 효과를 극대화할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를 함께 사용해보자. ABC 세럼을 바른 후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사용하면 마스크가 피부 틈 사이사이에 밀착되어 세럼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마스크의 풍부한 보습 성분이 세럼 위에 보습막을 입혀 겨울철 땅기고 건조해진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생기 있게 가꿔준다. 11월 한 달 동안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ABC 세럼 대용량 70ml와 함께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 4매와 안티에이징 라인인 타임 레스폰스 라인 체럼 키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했다. 시에나 밀러도 반한 ABC 세럼의 놀라운 효능과 자작나무 수액의 힐링 에너지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새롭게 오픈한 ABC 세럼 마이크로 사이트(<http://abc-serum.com>)에 방문해볼 것.



11월 리미티드 에디션 (ABC 세럼 70 ml +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 4매 + 타임 레스폰스 체럼 키트) 20만원.



style outside,

Heritage Inside

클래식한 정통성과 세련된 감각을 모두 갖춘 빈폴 골프가 2012년 가을, VVIP를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브리티시 트래디셔널 골프 웨어 브랜드, 빈폴 골프가 개최한 특별한 라운드 현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클래식한 골프 웨어의 정석

멋진 골프 웨어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소재와 패턴, 클래식한 느낌이 모두 잘 어우러져야만 필드에서 멋진 라운드를 펼칠 수 있다. 2001년 출시되어 오래도록 사랑받은 빈폴 골프는 스타일과 헤리티지를 모두 갖춘 클래식한 브랜드이다. 클래식한 컬러와 패턴, 좋은 소재의 제품으로 스타일링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누구나 나이 들어 보이는 기존의 골프 웨어 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빈폴 골프는 정통성을 표방하는 클래식 라인을 별도로 선보이는데 2012년 F/W 시즌 콘셉트는 스타일과 클래식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의 'style outside, heritage inside'이다. 골프의 기원, 역사, 열정을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적인 골프 단체인 브리티시 골프 컬렉터 소사이어티(British Golf Collectors Society)를 모티브로 그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이 바로 빈폴 골프 클래식인 것. 올해는 영국을 대표하는 타탄체크, 아가일, 컬렉터들의 수집품에서 영감을 얻은 그라픽에 레드, 그린 머스터드, 네이비 컬러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빈폴 골프 퍼스트 클럽 인비테이션

빈폴 골프는 진정한 골프 웨어 브랜드인 만큼, 빈폴 골프를 사랑하는 VVIP들을 위해 해마다 빈폴 골프 퍼스트클럽 인비테이션(8th Bean Pole Golf 1st Club Invitational)을 개최하는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골프 의류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주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휘닉스 스프링스CC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빈폴 골프 멤버십인 '퍼스트 클럽(1st club)' 회원들만 초청되었다. 18홀 핸디캡 스트로크 플레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골프 대회에서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필드 레슨이 진행되었는데, '잭 니클라우스 아카데미'에 소속된 36명의 강사들이 각 조와 함께 라운드를 해 최상의 샷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 마지막에는 우승자 선정과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참가자들을 선정해 라운드의 즐거움을 더했다. 문의 02-2076-7652



1 1백40여 명의 고객이 참여한 이번 골프 대회는 빈폴 골프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가장 큰 이벤트이다.
 2 공식 행사에 앞서, 빈폴 골프가 후원하는 프로 골퍼 서희경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되었다.

beautiful Influences

도회적인 세련미와 모던한 감각으로 사랑받는 마이클 코어스가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클레이본 온 코어스(Claiborne on Kors)를 선보인다. 시즌마다 크리에이티브한 인물과의 작업으로 탄생하는 이 프로젝트 시리즈는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더불어 끊임없는 자선 활동으로 기업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마이클 코어스의 행보 또한 주목해보자.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클레이본 온 코어스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뉴욕 컬렉션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에서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코어스 컬래버레이션'을 전개한다. 시즌마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코어스 컬래버레이션은 사진가, 예술가, 뮤지션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 걸친 크리에이티브한 인물들 중 한 명을 선정해 흥미로운 작업을 완성하는 것.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사진가 클레이본 스완슨 프랭크(Claiborne Swanson Frank)가 선정되어 '클레이본 온 코어스'로 이름 붙었다. 2012년 <아메리칸 뷰티>라는 책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나파 밸리와 뉴욕의 햄튼으로 떠났다. 마이클 코어스의 2012 F/W 컬렉션을 입은 11명의 인물은 각기 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의 비주얼을 E-book의 형태로 구성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짧은 소개와 촬영 스케치를 담고 있다. 마이클 코어스는 "클레이본의 책 <아메리칸 뷰티>는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편안함과 글래머러스함, 스포티하면서도 섹시함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맛이 묻어나는 여성들의 삶과 아름다운 순간으로 채워져 있죠.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인물은 마이클 코어스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담았어요"라며 클레이본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13 S/S 뉴욕 패션 위크가 열린 지난 9월에는 클레이본 온 코어스를 기념하기 위한 파티가 마이클 코어스 매디슨 애버뉴 컬렉션 스토어에서 열리기도 했다. 미니 카탈로그로 제작한 E-book의 비주얼을 컬렉션 VIP 고객들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클레이본 온 코어스는 마이클 코어스의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DestinationKors.com)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마이클 코어스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E-book에 나온 컬렉션 의상을 비롯해 슈즈, 가방 등 액세서리는 마이클 코어스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서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할 것.

마이클 코어스의 아름다운 행보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마이클 코어스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자선 활동으로 선행을 펼쳐왔다. 지난 7월에는 'God's Love We Deliver'에 5백만달러를 기부하면서 그동안의 자선 활동에 새로운 시도를 더했다. 'God's Love We Deliver'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마이클 코어스는 20년 동안 변함없는 지원으로 'God's Love'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1백1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이번 마이클 코어스의 기부는 개인 기부로는 뉴욕시 자선 단체의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큼 큰 기부 금액이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마이클 코어스의 이러한 기부 활동은 지난 10월 'Golden Heart Award'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God's Love'는 마이클 코어스의 자선 활동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레노베이션 계획이 있는 소호 사무실 건물의 이름을 'The Michael Kors Building'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마이클 코어스는 'God's Love'는 삶을 바꾸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과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God's Love'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죠. 'God's Love'를 향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마이클 코어스의 아름다운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문의 02-553-2772 에디터 이예진



1 마이클 코어스의 2012 홀리데이 컬렉션 광고 비주얼. 관능적이면서도 도회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을 표현했다.
2, 4 2012 F/W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3, 5 마이클 코어스 매디슨 애버뉴 컬렉션 스토어에는 클레이본 온 코어스에 등장한 모델과 마이클 코어스가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의 론칭을 축하하는 파티를 가졌다. 6 사진가 클레이본 스완슨 프랭크가 촬영한 클레이본 온 코어스의 대표 비주얼. 7 지난 10월 마이클 코어스는 'Golden Heart Award'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좌측부터) 라이언 머피, 퀴네스 팰트로, 마이클 코어스.



Flight Hyper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에서 탄생한 해밀턴. 미국적인 실용성과 고도의 정확성을 지닌 스위스 기술력이 결합된 해밀턴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3백50편에 달하는 영화에서 그 멋진 모습을 드러낸 해밀턴이 새로운 항공 워치, 파일럿 파이오니어 크로노 퀴츠를 선보인다.



하늘을 나는 시계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스위치 그룹을 대표하는 해밀턴(hamilton)의 실용적인 위치는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해밀턴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해밀턴 위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인기를 얻은 것은 영화의 역할도 컸지만 실용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제품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1919년부터 항공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항공 시계로 인정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대형 민간 항공사의 공식 워치가 되었다. 지금은 세계 최대의 에어쇼인 EAA Air Venture Oshkosh의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군 부대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최근에도 뛰어난 기능의 항공 워치를 세계 최고의 곡예 비행 조종사이자 해밀턴의 홍보대사인 니콜라스 이바노프(Nicolas Ivanoff)와 함께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항공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해밀턴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위치는 빈티지 파일럿 위치에서 영감을 받은 카키 파일럿 파이오니어 크로노 퀴츠(Khaki Pilot Pioneer Chrono Qtz)이다. 빈티지 파일럿 위치 모델의 핸

All about Women

럭셔리 패션 하우스가 아시아 시장에 두는 의미는 점점 더 무게를 더한다. 럭셔리 그 이상의 브랜드로 인식되는 에르메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 상하이와 에르메스, 이 두 거물의 만남은 그 규모와 특별한 전시 내용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역시 '거장'이 되어가는 크리스토프 르메르가 직접 디렉팅한 상하이에서의 스펙터클하고 예술적이었던 2012-13 F/W 여성복 컬렉션과 예술적 향취로 가득했던 액세서리 전시회 이야기.

지난 9월 1일, 이제 빅패션 시티 중 하나로 떠오른 상하이는 에르메스의 향기로 가득했다. 오후 7시 30분, 초청 게스트들은 거대한 상하이 전시 센터(Shanghai Exhibition Center)로 안내되었고, 행사장인 1950년대 러시아 건물 입구 쪽 광장에는 씨 퀴 24 포부르(Circuit 24 Faubourg) 스카프 패턴의 거대한 말 모양의 종이 접기가 자리 잡아 에르메스의 상징성과 이찬란한 이벤트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에르메스의 2012년 가을, 겨울 여성 액세서리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전시와 퍼포먼스 등으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다. 에르메

스의 가방과 구두 등의 가죽 제품이 5개의 공간에 나뉘어 전시되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는 처음 공개된 에르메스의 섬세한 오토 주얼리가 눈길을 끌었다. 댄스 공연을 보는 듯한 구두 전시, 신비한 조명 아래 빛나는 파인 주얼리, 온통 레드 드로 장식된 방 안의 백 디스플레이가 이채로웠다. 또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모던 아트를 모티브로 한 스톱 액세서리 퍼레이드는 그 어떤 회화 작품 전시보다 품격 있었으며, 화려한 스카프 전시 등 패션 전시회에 대한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서 시작된 크리스토프 르메르의 2012 F/W 여성복 패션쇼, 에르메스에 입성하여 세 번째 맞는 이번 여성복 컬렉션은 노매딕(nomadic)하면서도 도시적인 멋스러움이 돋보인 컬렉션이었다. 조금은 와이드하지만 엄격한 스타일. 아르헨티나 목동들의 가우초에서 영감을 받은 아우터웨어부터 다양한 소재와 파리지엔의 옷장에서 꺼냈을직한 세련된 실루엣, 스포티브하고 편안한 트래블러 아이템들과 저녁을 꿈꾸게 하는 이브닝 웨어까지 네 가지 테마를 녹여 시크하고 다양한 룩을 선보였다.

"모든 컬렉션은 여러 가지 영감의 조합이다. 스타일은 퓨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컬렉션은 가우초 스타일과 매우 파리지엔스러움의 믹스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클래식하기도 하고 또한 매니시하기도 한 1970



년대의 파리. 세르주 갱스부르, 브리짓트 바르도, 제인 버킨 등을 떠올렸다." - 크리스토프 르메르(에르메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번 에르메스의 가을, 겨울 여성복 컬렉션의 색감은 깊고 어두웠으며 실루엣은 대담하면서도 모던했다. 그리고 캐시미어, 가죽, 트윌 렌(twill laine, 실크와 울 혼방) 등의 주요 소재는 보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질 만큼 놀랍도록 순수했고 따뜻해 보였으며 고급스러웠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패션쇼가 결합된, 화려함과 놀라움이 함께한 에르메스의 상하이 이벤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에르메스의 가치를 새삼 재확인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Sparkling Encounter

즈와 인덱스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10시 방향과 6시 방향에서 각각 분과 초를 표시해주는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가 비대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체가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랩도 매력적인데, 밀리터리 위치 전용으로 사용하는 나일론 소재의 나토(nato) 스트랩을 사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해밀턴을 대표하는 컬러인 오렌지와 그레이, 블랙 컬러가 조화를 이룬 과감한 컬러의 멀티컬러 스트랩도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가죽 혹은 나토 스트랩을 매치한 디자인은 72만원대, 메탈 브레이슬릿은 81만원대. 문의 02-3149-9593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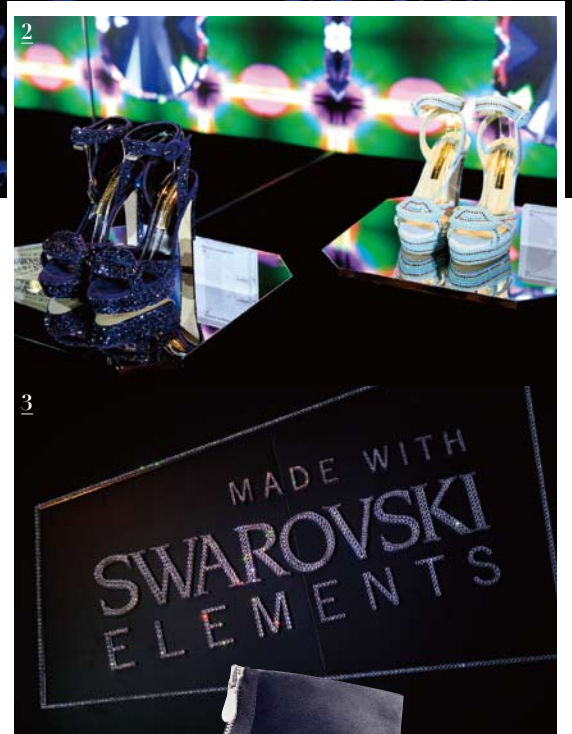
1, 2, 3, 4 해밀턴이 2012년 새롭게 선보이는 카키 파일럿 파이오니어 크로노 퀴츠 워치의 다양한 컬렉션. 대체로운 소재와 스타일, 색상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다. 5 해밀턴의 브랜드 로고와 시그니처 컬러로 래핑한 비행기의 모습.



최고의 크리스털을 생산하는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와 슈즈 디자이너의 만남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스파클링 콘트라스트 캡슐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건축적인 디자인의 플랫폼 슈즈부터 매니시한 로퍼, 클래식한 발레 슈즈까지, 클래식과 초현대적인 판타지를 넘나드는 눈부신 창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창조적인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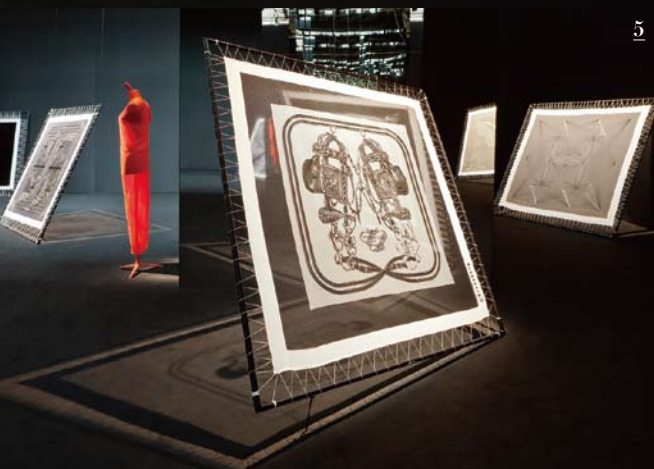
현대적인 예술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스와로브스키의 프리미엄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는 1895년 론칭 이래 최고의 크리스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얼리와 액세서리를 비롯해 조명과 건축 인테리어 등에 독창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매김한 것. 정말하게 커터링한 천연 원석과 세공 원석은 평범해 보이는 사물에 세련된 화려함을 더해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조적인 영감이 되어주었다.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는 2013 S/S 시즌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디자이너와 주목받는 신예 디자이너 13명에게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을 제안했다. 자신의 크리스털을 메인 소재로 사용해 서로 대조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2개의 디자인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한 것. 하이힐이나 플랫폼 슈즈, 슬립온 등 스타일을 막론하고 커머셜하고 웨어러블한 디자인의 슈즈를 만들어달라는 조건을 더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스파클링 콘트라스트 캡슐 컬렉션'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크리스털 원석과 신발 디자이너와의 만남은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등 다양한 나라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시그니처 아이템을 반영한 흥미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프레시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독창적이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가장 눈에 띄는 슈즈는 하나의 작품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함을 극대화한 카사데이(Casadei)의 슈즈였다. 얼음 나라를 떠올리는 눈꽃 송이 장식과 얼음을 커터링 듯한 웨지힐, 바다와 산호초를 연상시키는 새파란 주얼 슈즈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빛과 기하학에서 영감을 얻은 알레안드로 잉겔모(Alejandro Ingelmo)는 웨지힐과 플랫폼 슈즈의 발목 스트랩에 크리스털을 더해 단순한 라인이 주는 매력을 강조했다. 샬롯 올림피아(Charlotte Olympia)는



1 상하이의 인디즈 호텔에서 열린 '스파클링 콘트라스트 캡슐 컬렉션', 2 압솔 모티브 장식에 딱 맞는 루퍼트 샌더슨의 작품, 3 크리스털을 수놓은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로고, 4 미국 디자이너 알레안드로 잉겔모의 웨지 앵글부츠, 5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오리듬은 미래적인 터치로 주얼 장식 슈즈를 선보였다.

블랙 벨벳 소재에 크리스털 거미줄에 앉아 있는 거미 프린트로 위트를 더했다. 중국 디자이너 배아트릭스 옹(Beatrix Ong)

은 블랙 페이턴트와 캔버스 소재의 옥스퍼드 슈즈에 스테드 장식으로 핑키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느낌을 표현했다. 고대 인디언의 머리 장식을 재해석한 지오 듀(Gio Diev), 아르테코를 연상시키는 오브제를 더한 새틴 펌프스의 메종 데 탈롱(Maison Des Talons), 신발 전체에 크리스털을 눈부시게 세팅한 제롬 C. 루소(Jerome C. Rousseau)는 이브닝 슈즈에 더없이 어울릴 만한 우아한 디자인과 구조적인 실루엣을 강조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네오리듬(Neorhythm)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의 컬러에서 영감을 얻었을 법한 비비드한 주얼 장식의 하이 톱 샌들과 순백색의 앵글 스트랩을 선보여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레페토와 로베르 클레제리(Robert Clergerie)는 그들의 DNA를 녹인 플랫폼 슈즈와 레이스업 슈즈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국내에서는 내년쯤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 최고의 크리스털과 촉망받는 슈즈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에디터 이예진**



1, 2 아르테나 목동들의 가우초에서 영감을 얻은 에르메스의 올 거울 컬렉션.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편안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3 행사장 입구에 자리잡은 거대한 말 모양의 종이접기 조형물, 4 더욱 더 진화된 에르메스 여성복 컬렉션을 보여준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르메르, 5 스카프를 주제로 한 전시장 전경.

art playground Project

덴마크는 놀이터도 예술가들이 디자인한다. 왜 놀이터에도 아티스트의 손길이 필요한가? 놀이터는 모두가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코펜하겐에서는 덴마크 대표 예술가들에게 놀이터의 디자인을 맡겨,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지나는 행인들까지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2 여성 듀오 미술가 란디 & 카를린의 조형물 '사와라마 하우스와 요양원에 설치된 휴식 장소 '커피 주전자 파빌리온'. 3,6 코펜하겐 도심에 위치한 란디 & 카를린의 놀이터는 동물들이 가득한 숲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4 탄야 로의 놀이터는 뇌야브 발더스 게이트 지역에 설치되었다. 5, 12 미술가 니나 손더스의 현대미술 작품과 거실을 주제로 한 놀이터 전경. 미술가는 작품을 소장한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녀의 현대미술 작품은 영국 사치 컬렉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덴마크 에스비에르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덴마크 대표 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8, 9, 10 피터 란드의 놀이터는 코펜하겐 외곽의 우테르슬루 모세 지역에 있다. 채색된 나무로 만든 3m의 거대한 머리가 설치되었는데 아이들은 입과 귀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7, 11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각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된 미술가 에바스틴 크리스텐센의 놀이터.

디자인 유전자의 생성

북유럽의 출중한 디자인 DNA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흠잡을 데 없는 북유럽의 디자인 제품을 바라보며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 그와 관련된 해답을 찾은 듯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는 유명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놀이터라면 우리나라에도 많다. 새로 완공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놀이터는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다. 하지만 그 놀이터는 누가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안전성은 어떤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미정이다. 그러다 보니 덴마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놀이터를 디자인한다는 발상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다면 미술관에 따로 가지 않아도 미술 작품을 접하는 셈이니 놀라운 디자인 감각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프로젝트의 큐레이터, 로이세 반케 크리스텐센(Loise Banke Kristensen)은 코펜하겐 예술 놀이터의 모토는 '보고, 만지기라고 설명한다. 코펜하겐에는 미술관과는 달리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술 놀이터가 탄생한 것이다. "최근 코펜하겐의 놀이터 중에서 1백20개를 조정 건축가들이 재정비했는데, 놀이터의 형태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술 놀이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어린이의 운동 능력과 건강을 증진하면서 성장과 상상력에 자극을 주는 놀이터를 창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요." 탄야 로, 니나 손더스, 피터 란드, 에바스틴 크리스텐센, 란디 & 카를린 등 덴마크를 대표하는 다섯 팀의 아티스트들이 예술 놀이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각 놀이터마다 그들만의 예술적 상상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코펜하겐의 현대미술 놀이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예술 놀이터 세 곳은 덴마크의 유명 현대미술 작가 니나 손더스, 에바스틴 크리스텐센, 탄야 로의 작품이다. 니나 손더스(Nina Saunders)의 놀이터는 외스트르 앙래그 지역에 설치했는데, 거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 흥미롭다. 키 작은 나무로 둘러싸여 일종의 무대처럼 보이는 놀이터에는 TV,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들은 브라운관이 없는 옛날 스타일의 TV에 직접 얼굴을 들이밀고 연극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다. 붉고 반짝이는 소파의 중앙 부분은 찌그러져 마치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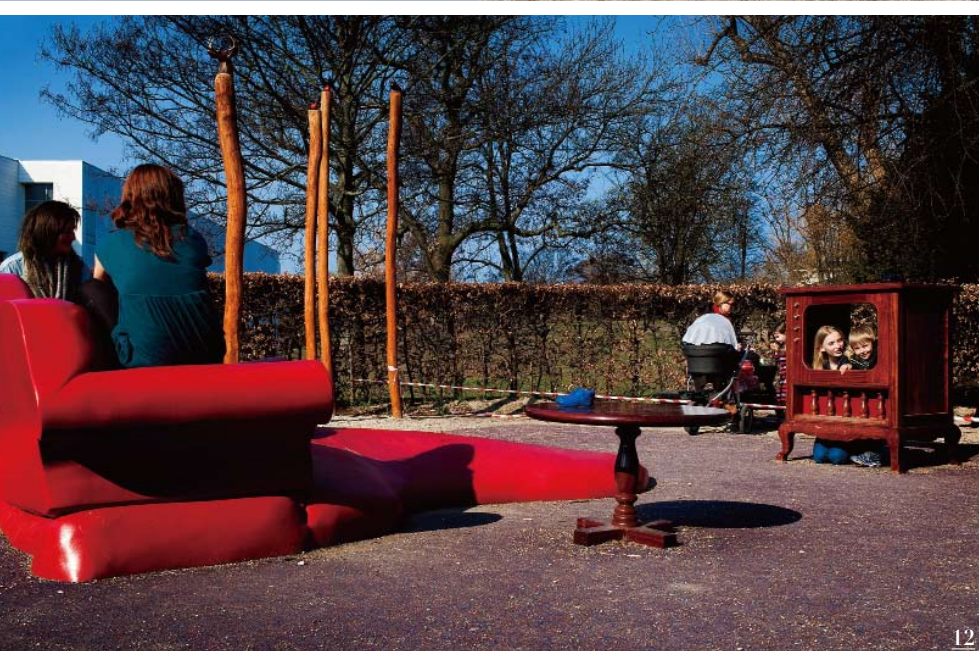
9



10



11



12

강렬해 보이고, TV 앞 테이블에는 작고 파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나무 위에는 지빠귀가 지저귀다. 니나 손더스는 녹아내리는 형상의 가구 시리즈를 발표한 바 있는 현대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 특색을 놀이터에 제대로 구현한 셈이다. 가구 이외에 여우, 새 등 동물을 모티브로 즐겨 사용하는 그녀의 미술 작품은 철학적이면서도 재미있고 황당한데, 그녀가 디자인한 놀이터 역시 그러하다.

에바 스티ن 크리스텐센(Eva Steen Christensen)은 주로 주거 공간에 관련된 재료와 사물을 작품에 인용하는 작가이다. 그녀의 현대미술 작품은 침대, 카펫 등의 실용적 사물을 간단하게 변형해 관람객들의 고민을 유도하는 경향이 돋보인다. 블루가즈 광장에 위치한 그녀의 예술 놀이터 역시 그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매달리거나 몸을 통과할 수 있는 둥근 조형물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올라가서 깡충깡충 뛸 수 있는 스프링 받침대가 흩어져 있다. 통나무를 가로로 자른 것 같은 오크 통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아이들이 몸을 구부려 숨어들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각각 다른 종류의 그네도 있다. 미술가 탄야 로(Tanja Rau)의 놀이터는 뇌어브 발디스 게이드 지역에 있으며, 형형색색의 색채가 커다란 작품을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터는 탄야 로 특유의 컬러로 채색된 게이트 안에 있으며 그 안에는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농구장도 있다. 컬러가 아름다운 미끄럼틀과 작은 구름 사다리도 추상화의 한 부분 같다.

운동 능력과 언어 능력의 급상승

놀이터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행복을 선사하고,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생각나게 하는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놀이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해도 될 것 같다. “예술가의 놀이터는 도시에 시각적 효과를 더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터에서 운동 능력뿐 아니라 언어 능력, 상상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지요.” 로이세 큐레이터는 아이들은 천편일률적인 도시 공간과는 전혀 다른 놀이터에서 신비롭고 특이한 공간을 만남으로써 환상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한다. 3곳의 놀이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자 2곳의 놀이터를 또 다른 아티스트에게 의뢰했다. 미술가 피터 란드과 란디 & 카틀린가 바로 그들이다. 피터 란드(Peter Land)의 놀이터는 코펜하겐의 외곽에 있는 거대한 자연 지역인 우테르슬루 모세에 설치되었다. 그의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3m의 커다란 머리와 손이 바닥에 놓여 있는 형상이라 만화 속의 세계가 현실로 펼쳐진 것만 같다. 아이들은 조형물의 입과 귀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머리 뒤쪽의 계단을 통해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는 소방관처럼 붐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다. 머리 안에는 눈을 표현한 두 가지 색깔의 작은 언덕이 있어서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스펙트럼 체험이 가능하다. 겨울이면 눈에 파묻히는 이 놀이터는 더욱 환상적으로 변모한다.

소나무 숲과 올빼미

여성 듀오 아티스트 란디 & 카틀린(Randi & Katrine)의 작품은 시내 중심부의 니콜라이 광장에 있다. 소나무 숲을 연상케 하는 삼각형의 뾰족한 지붕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올빼미 조형물이 인상적인 놀이터이다. “소나무 숲 놀이터는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교회 가까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의 뾰족한 지붕은 교회의 첨탑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놀이터의 주요 방문자인 2세에서 6세 어린이들의 키와 놀이기구 선호도, 안전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 기구를 배치함으로써 다채로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네와 미끄럼틀, 저미줄 타기 등 전통적인 놀이터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 아이들이 올라가고, 기고, 미끄러져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놀이터를 위한 공간이 매우 작아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아이들은 소나무 숲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 다른 지붕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올빼미 조형물이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지요.” 올빼미는 덴마크에서 ‘현명함’을 상징한다. 아이들은 예술가의 놀이터에서 예상치 못한 지혜로움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다. 올빼미 조각은 터키석과 같은 하늘색, 오렌지색, 노란색과 회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초록색이 주요 색조를 이루고 있는 이 놀이터의 신비로운 컬러는 기존의 놀이터에선 볼 수 없는 것이다. 밝은 초록에서부터 검은빛에 가까운 초록까지, 다양한 채도와 명도의 초록색이 조화롭게 소나무 숲을 형상화하고 있다. 란디 & 카틀린의 공공 미술 작품은 소나무 숲 놀이터 이외에도 커피 주전자 파빌리온과 사와르마 하우스, 피크닉 바구니 등 다채롭다. 특히 2011년 로센하벤 요양원(Rosenhaven Nursing Home)에 설치된 ‘커피 주전자 파빌리온’은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에서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 사랑스러운 조형물이다. 요양원을 찾는 방문객들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들은 주전자 형태의 파빌리온 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다. “이곳은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어린 시절의 추억과 활기찬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정원의 휴식 공간조차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덴마크 아티스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예술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공 디자인 감상의 행운을 누리고 있으니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코펜하겐을 여행한다면 예술 놀이터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을 잊지 마시라. **글 이소영**(서울, 그카페 홀더라),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의 저자

Enjoy, smart outlet shopping!

최근 아웃렛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아웃렛은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휴식, 여행 등의 부수적인 여가 활동까지 책임지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 9개국에 진출한 시크 아웃렛은 이 모든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키는 베스트 브랜드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도시, 파리, 마드리드, 런던 근교의 시크 아웃렛에 관한 매력적인 정보 파일.



당신의 쇼핑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바로 '쇼핑'이 아닐까? 특히 아웃렛 쇼핑은 소비 문화나 각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경제적인 영향력 등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아웃렛도 브랜드의 시대. 입점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브랜드 파워를 지닌 거대한 상품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한 유명 백화점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백화점의 고객들이 아웃렛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50%나 증가했다. 프리미엄 아웃렛이 새로운 유통 시설로 각광받으면서 우리의 소비 생활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 것.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명품을 지향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최근엔 불황으로 인해 명품 소비가 부담스러워진 명품홀릭들까지 가세하면서 아웃렛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꼭 지출의 크기뿐만 아니라 같은 상품을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쇼핑할 때의 즐거움은 마치 보물찾기에 성공한 듯한 남다른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여기

에 백화점 못지않은 썩 쾌적한 환경에서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쇼핑과 외식까지. 이제 아웃렛은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공간적 대상이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패턴까지 바꾸는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교외에 한적하게 자리 잡은 아웃렛은 찾아가는 즐거움과 함께 공간적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제공, 주말이나 여가를 즐기는 필수 코스가 된 것. 게다가 이제 아웃렛도 브랜드의 시대. 입점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브랜드 파워를 지닌 거대한 상품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각 지역과 브랜드별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이제 고객들이 '골라가며' 아웃렛 쇼핑을 즐기는 시대가 온 것이다.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London)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클래식한 풍경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근처의 비스터 빌리지는 시크 아웃렛 쇼핑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전 세계 빌리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인기가 높다. 막스마라, 던힐, 페라가모 등 1백여 개의 명품 부티크 숍과 레스토랑, 카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어 쇼퍼들의 천국 같은 곳이다. 특히 비스터 빌리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브랜드는 단연 영국 브랜드.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멀버리, 아쿠아스쿠템, 버버리, 카렌 밀렌(Karen Millen) 매장은 꼭 들를 만한 곳. 또 크리스찬 디올, 프랭클 오브 스코틀랜드(Pringle of Scotland) 그리고 아냐 힌드마치(Anya Hindmarch)는 이곳 비스터 빌리지에 유일한 아웃렛 숍을 두고 있는 비스터 빌리지만의 자랑이다. 비스터 빌리지에는 패션 브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 최고의 욕실 용품 브랜드 펜할리곤스(Penhaligon's), 영국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몰튼 브라운(Molton Brown)과 침구 전문 기업인 더 화이트 하우스(The White Company)도 입점해 있다.

찾아가는 길 1) 승용차를 타고 M40 고속도로 진입 후 9번 출구로 나와 A41번 도로를 타고 비스터 방향으로 2마일 정도 진행 후, 빌리지 리테일 파크(Village Retail Park)와 비스터 표지판을 따라간다. 2) **기차 이용 시** (60분 소요) 칠턴 레일웨이즈(Chiltern Railways)를 이용. 런던 메릴본(London Marylebone) 역에서 매 20분 또는 버밍햄 무어 거리(Birmingham Moor Street) 역에서 매시 정각 기차를 타고 비스터 노스(Bicester North) 역에 하차한다. 3) 비스터 역과 비스터 빌리지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4) **쇼핑 익스프레스** 쇼핑 익스프레스는 주요 도심부에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까지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는 고급 정기 버스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 **영업시간** 월-수·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목-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연락처** 주소 Bicester Village, 50 Pingle Drive, Bicester, Oxfordshire, OX26 6WD, England **전화번호** +44(0)1869 366 300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Paris)

가장 트렌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는 이미 파리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파



리 여행 시 꼭 들러야 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프랑스 패션계의 중심지인 파리 라발레(Champagne) 지역에서 불과 35분 거리이며, 특히 파리 디즈니랜드 리조트 옆에 위치해 가족 여행객들이 방문하기에도 적합하다. 라발레 빌리지에는 프랑스와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액세서리, 그리고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90여 개의 명품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있고 이곳에서 최소 33~6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라발레 빌리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브랜드로는 지방시, 크리스찬 라크루와, 룡삼, 마쥬, 산드로, 자크앤볼테르 등의 프랑스 브랜드. 패션의 중심 파리에 위치한 라발레 빌리지는 패션 도시답게 다른 아울렛과 비교해 유행에 빠른 최신 상품과 다양한 사이즈 등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찾아가는 길 1) 승용차를 타고 A4 고속도로 진입 후 파리 방향에서는 12.1번 출구, 랭스(Reims) 방향에서는 14번 출구로 빠진다. 파리 도심에서 차량으로 35분 거리. 2) **고속 지하철 이용** 시 파리 센트럴 RER A에서 승차 후 발드유럽(Val d'Europe) 역에서 하차(45분 소요). **테제베(TGV), 탈리스(Thalys), 유로스타(Eurostar) 이용** 시 마른(Marne)-리발레(La-Vallée)-세시(Chessey)-팍스(Parcs) 디즈니랜드(Disneyland) 역에서 하차. 3) **쇼핑 익스프레스** 쇼핑 익스프레스는 주요 도심부에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까지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는 고급 정기 버스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연락처** 주소 La Vallée Village, 3 Cours de la Garonne, 77700 Serris, Marne-la-Vallée, France **전화번호** +33(0)1 60 42 35 00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Madrid)

라스 로사스 빌리지는 화려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중심에서 외곽으로 30분 거리에 자리한다. 스페인 전통의 테라코타 지붕과 백색 치장도로 만들어진 담장의 라스 로사스 빌리지에는 95개가 넘는 명품 부티크 아울렛 숲이 즐비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스페인의 유명 디자이너인 안토니오 미로(Antonio Miro), 안드레 사르다(Andrés Sardá), 로에베(Loewe), 로베르토 베리노(Roberto Verino)의 아울렛 숲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캐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 베르사체(Versace), 발리(Bally) 같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운이 좋다면 켈빈클라인 청바지와 영국 스타일의 해켓(Hackett), 스포츠웨어인 컬럼비아(Columbia)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시크 아울렛에 비해 보다 젊고 경쾌한 브랜드들이 많아 한결 생동감 있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라스 로사스 빌리지에는 패션 의류 핸드백과 액세서리 이외에도 레스토랑과 초콜릿 숲이 있는데 쇼핑에 지쳤다면 빌리지 내의 레스토랑에서 스페인 요리를 맛보든가 빌리지 내의 초콜릿 공장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초콜릿을 맛보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찾아가는 길 1) **기차 이용** 시 (30분 소요) 마드리드의 아토차(Atocha) 또는 차마틴(Chamartin) 역에서 파나르 드 라스 로사스(Pinar de Las Rozas) 역행 열차 이용. 2) **공항**에서는 바라자스(Barajas)의 몬클로아(Moncloa) 버스 정류장에서 625·628번 버스를 이용. 3) **쇼핑 익스프레스** 쇼핑 익스프레스는 주요 도심부에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까지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는 고급 정기 버스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 **영업시간** 월-금요일, 일요일 및 휴일 오전 11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연락처** 주소 C/Juan Ramón Jiménez 3, 28230 Las Rozas, Madrid, Spain **전화번호** +34(91)640-4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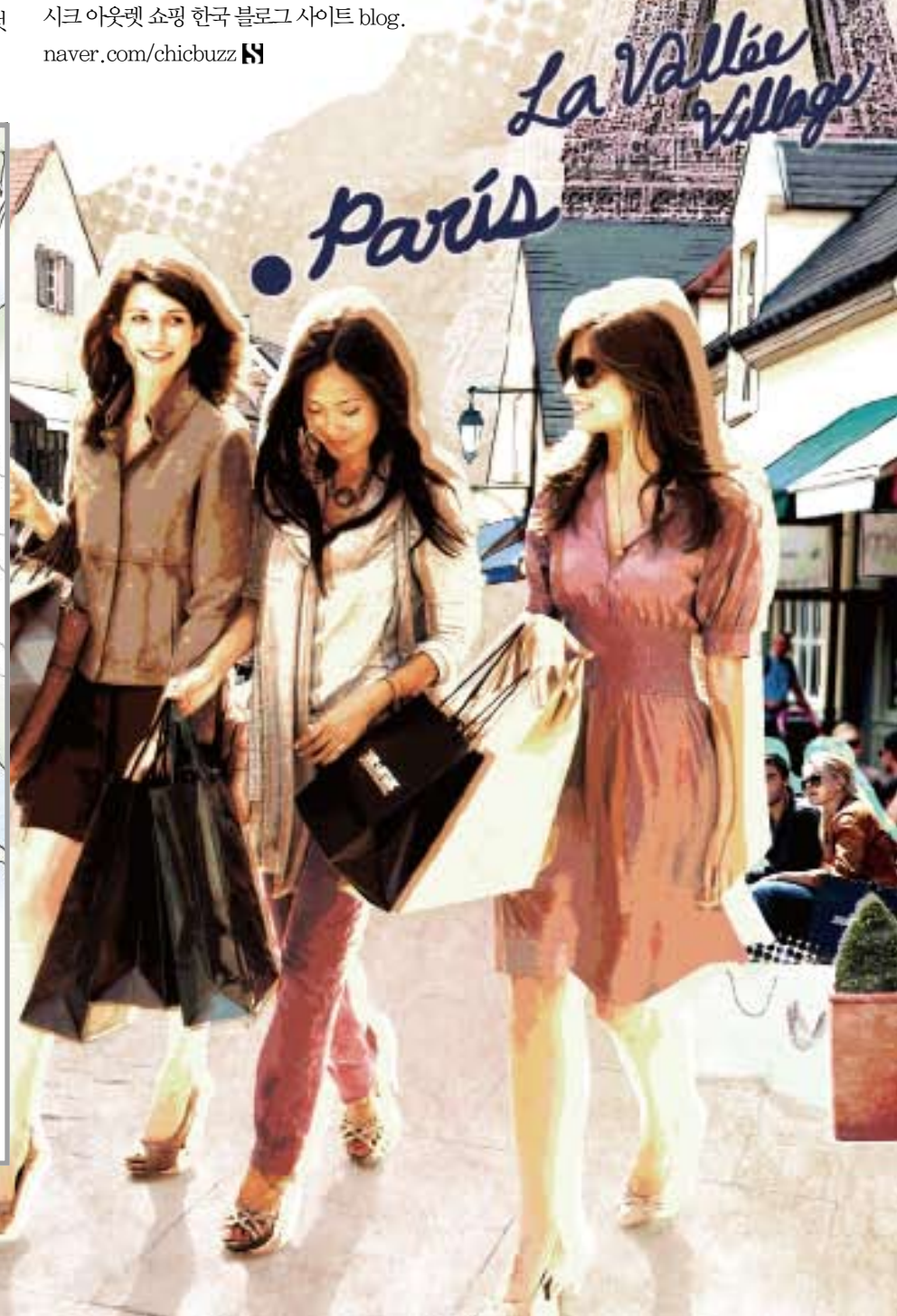
더욱 편하고 경제적으로 아울렛 쇼핑 즐기기

시크 아울렛은 또한 국내 항공사와 손잡고 보다 경제적이고 편하게 아울렛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크 아울렛 쇼핑은 지난 4월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제휴 계약을 맺고, 유럽행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을 대상으로 유럽 주요 도시에 위치한 9개의 시크 아울렛 쇼핑 매장 방문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 탑승객들은 유럽 내 9개 시크 아울렛 쇼핑 빌리지에서 아시아나 탑승권을 제시하면 아울렛 가격에서 추가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VIP 카드를 제공받는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직항으로 운항하는 유럽 내 3개 도시인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도심에서 시크 아울렛 쇼핑 빌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쇼핑 익스프레스' 리무진 셔틀버스(1만5천~4만원 상당)를 온라인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시크 아울렛 쇼핑은 지난 8월부터 대한항공과도 업무 제휴를 맺고, 유럽 내 9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쇼핑 몰에서 유럽행 대한항공 탑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 탑승객들은 9개 빌리지 내 관광 안내 센터를 방문해 탑승권을 제시하면 역시 추가 10% 할인이 가능한 VIP 카드를 제공받는다. 또 대한항공이 직항 운항하는 유럽 5개 도시인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마드리드 노선 탑승객들에게는 도심에서 빌리지까지 운항하는 '쇼핑 익스프레스' 리무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단,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 쇼핑 익스프레스는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5천원에서 4만원 상당(1인, 왕복 기준). www.chicoutletshopping.com/ko, 시크 아울렛 쇼핑 한국 블로그 사이트 blog.naver.com/chicbuzz



유럽의 9개 시크 아울렛 쇼핑몰

- 영국 런던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London) • 프랑스 파리 라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Paris)
- 아일랜드 더블린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Dublin) • 이탈리아 밀라노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Milan)
-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Barcelona)
-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Madrid) • 벨기에 브뤼셀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Brussels/ Dusseldorf)
-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Frankfurt) • 독일 뮌헨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Munich)



SHOWROOM



발란타인

콜로에



모그



코치 디올



데레쿠니



르베이지

랄프루렌



에코

마이클 코어스



펜디



FASHION

콜로에 파티티 밀리터리 콜로에에서 '파티티 밀리터리' 백을 전개한다. 콜로에의 대표적인 잇 백이자 매 시즌마다 선보이는 파티티 백은 기존의 숄더 스트랩 대신 밀리터리 무드가 물씬 풍기는 넓은 스트랩에 스타드 장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블랙, 레몬, 민트 등 3가지 컬러로 구성했으며 전국 콜로에 매장을 비롯해 가방 전문 온라인 쇼핑몰(www.bestbrandbag.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3-1737

발란타인 투톤 캐시미어 코트 발란타인에서 남성성을 위한 '투톤 캐시미어 코트'를 선보인다. 심플 버튼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어깨선과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 걸림과 안감의 모두 캐시미어로 이중 처리되어 있어 보온성이 두 배로 뛰어나며, 버건디 컬러의 안감을 사용해 투톤 색상의 대비가 멋스럽다. 도산공원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아케이드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3-0840

모그 캐시미어 코트 모그가 감각적인 현대 여성을 위해 캐시미어 코트를 재인vented. 우수한 보온성과 가벼운 무게의 캐시미어는 겨울 아우터웨어의 최고급 소재로 꼽힌다.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라인에 라펠과 소매에는 배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아웃포켓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더했다. 폐미난한 원피스부터 깔끔한 정장 팬츠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517-8961

코치 한국 웹사이트 론칭 코치가 국내 고객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한국 웹사이트를 정식으로 론칭한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신 컬렉션과 코치의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별자리에 맞는 패션 제안, 셀러브리티의 가방 등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11월 15일까지 코치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에게

웹사이트 오픈 소식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천을 통해 레거시 컬렉션 백, 호텔 숙박권, 코치 가죽 액세서리를 선물로 증정한다. Coach.com

디올 아시안 필름 후원의 밤 디올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첫날에 아시아 영화 제작 지원 및 신진 감독들을 발굴하는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APM)과 아시아 영화 펀드(ACF)에 기부금을 증정하는 후원의 밤을 진행했다. 수애, 유지태, 동방신기 등 수많은 셀러브리티와 영화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13-3232

랄프루렌 켈티드 레더 백 라인 랄프루렌이 2012 F/W 시즌을 위한 '켈티드 레더 백 라인'을 선보인다. 브랜드의 빈티지 자동차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바디의 켈팅 디테일과 블랙 보드에 갈색 핸들의 대비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가볍고 유연한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캐주얼한 느낌의 브리프케이스와 여행과 출장 길에 사용하기 좋은 워크엔드 더플 백 두 가지 스타일로 구성했다. 달착이 가능한 가죽 스트랩이 달려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02-6004-0133

르베이지 매거진 4번째 에디션 르베이지에서 2012 F/W 시즌을 맞아 르베이지 매거진 4호를 발행한다. '르베이지는 라이프스타일이다'라는 주제 아래 매종 르베이지의 베딩, 가구, 리빙 소품, 오브제를 활용한 리빙 화보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의 건축물, 한국을 대표하는 7인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화보 등 풍성한 볼거리를 담았다. 문의 02-3442-3012

토즈 크리스마스 에디션 토즈에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한정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빛에 따라 컬러가 달라지는 메탈릭한 고미노 슈즈와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에 화이트 컬러의 인크를 더한 디 백(D Bag) 등 토즈를 대표하는 시그너처 아이템을 색다르게 재해석했다. 문의 02-3448-8198

에코 론칭 프레젠테이션 에코(Ecco)가 국내 론칭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에코는 가죽 생산부터 제작까지 생산 공정을 모두 책임지는 덴마크의 슈즈 브랜드.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로퍼와 골프 슈즈를 비롯해 러닝화, 등산화 등 데일리 룩과 워크엔드 룩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 내년 2월부터 주요 백화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40-4723

마이클 코어스 홀리데이 워치 컬렉션 카밀 워치 마이클 코어스는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카밀 워치(Camille Watch) 컬렉션을 선보인다. 심플하고 볼드한 형태가 특징인 카밀 워치는 이번 시즌 크로노그래프 디자인과 로마숫자 인덱스를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골드, 로즈 골드, 실버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553-2772

데레쿠니 파이론 체인 백 데레쿠니에서 심플한 사각 형태의 파이론 체인 백을 출시한다. 고급스러운 리얼 파이론 가죽에 다크 브라운 컬러 가죽을 매치해 야국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체인뿐만 아니라 플립 모서리, 정면 가운데 버클에 골드 메탈 소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미디엄과 라지 두 가지 사이즈로 구성했다. 문의 070-7130-2959

펜디 온라인 팝업 스토어 오픈 펜디는 바게트 탄생 15주년을 맞아 온라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 바게트 월드를 소개한다. 클래식한 바게트를 재해석한 리에 디션을 비롯해 새로운 바게트 컬렉션, 독특한 빈티지 피스를 덧붙이거나 본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엠브로이더리 바게트 등을 선보이며, 바게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표현한 칼 라카펠트의 스케치가 담긴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유럽 지역과 미국, 일본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www.fendi.com

콘래드 서울 시그너처 패키지 LOBY 판매 콘래드 서울은 11월 12일부터 '당신이 중심이 되는 럭셔리'라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한 'LOBY(Luxury of being yourself)' 패키지를 선보인다. 투숙 당일 예약이 가능한 요금 중 최저가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조식 무료 서비스나 객실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더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02-6137-7000

스탠다드차타드 강남PB센터 우대금리 이벤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강남PB센터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고객들이 여유 자금을 유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 입출금 통장 '두드림 2U 통장'의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 11월 30일까지 '두드림 2U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은 통장 개설 익월월부터 2개월간 최고 연 4.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3461-8272

엘본 더 테이블 이태원점 오픈 엘본 더 테이블(ELBON the table)이 이태원점을 오픈했다. 매일 달라지는 최첨단 세트의 코스 메뉴와 월드 클래스 막스콜라스트 박성민 셰프의 세련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다이나믹 라운지 콘셉트로, 점심과 저녁, 늦은 밤까지 신선한 요리와 술을 트렌디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문의 02-790-0700

르크루제 폴링 인 스위트 컬렉션 출시 르크루제는 가을의 달콤함을 모티브로 한 뉴 컬렉션 '폴링 인 스위트'를 출시한다. 원형 무쇠 주물 냄비 '슈폰 핑크'는 16cm, 18cm, 20cm 등 가장 실용적인 크기로 구성했으며, 오븐 요리를 비롯해 파스타 등을 담는 접시로 사용하는 스톤 웨어는 사랑스러운 로즈 쿼츠, 우아한 카시스, 따뜻한 카푸치노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44-4841



르크루제

BEAUTY

베네피트 퍼크 업 앤 어웨이 베네피트가 베스트셀러 아이템 5종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인 '퍼크 업 앤 어웨이'를 선보인다. 국민 블러셔로 사랑 받는 '단털리온'을 비롯해 하이라이어 '왓츠업', 핑크빛 틴트 '포지티브', 마스크라 미니 데아 리얼 마스크와 프라이머 미니 더 포어페셔널로 구성했다. 감각적인 여행 가방 모양의 상자 패키지로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80-001-2363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아티스트리가 피부의 젊음을 활성화하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라인인 '유스 익스텐드'를 론칭한다. 지중해 허브에서 추출한 허귀 식물인 라이프시르트를 함유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자랑한다. 더불어 피부를 리프로그래밍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해 이미 생긴 노화 현상은 물론 미래의 노화까지 예방한다. 컨센트레이트, 크림, 아이크림으로 구성했다. 문의 1588-0080

클라란스 멀티액티브 아이 리바이브 클라란스가 눈가 주름, 붓기, 칙칙함을 해결해줄 아이크림인 멀티액티브 아이 리바이브를 출시한다. 초기 노화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차커리 추출물이 눈에 활력을 주고 깊은 주름과 잔주름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또 라이트 코렉팅 피그먼트가 화사하고 균일한 눈가 피부를 완성한다. 문의 080-542-9052

설화수 윤조에센스 나눔 리미티드 에디션 설화수가 '나눔'이라는 콘셉트로 한국 예술가 박유진과 함께 '윤조에센스 나눔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에디션은 특별한 박스 패키지가 돋보이는데, 윤조에센스 병 속에 나눔과 사랑을 꽃피우는 또 하나의 병이 있고 이 속에 사랑, 화합의 의미를 담은 오방색과 나눔을 상징하는 새를 담아 따뜻한 나눔을 표현했다. 120ml 대용량으로 선보이며 11월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문의 080-023-5454

BTY 갤러리 오픈 향수 전문 브랜드 슝 BTY 갤러리가 마포구 서교동에 1호점을 오픈한다. 이는 향기로운 슝타리는 모든 아래 포라다의 향수 컬렉션을 비롯 마크 제이콥스, 쥘시 꾸뛰르, 페라리, 존 바바토스, 나나리피 등 총 20여 가지가 넘는 향수 브랜드를 소개한다. 다양

한 향수를 마음껏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향수 전문 카운슬러가 1:1 맞춤 향수 카운슬링을 도와준다. 문의 02-3443-1805

르페르 로얄 드 캐비아 르페르가 고순도로 농축한 캐비아 추출물을 담은 '로얄 드 캐비아'를 출시한다.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캐비아는 인간의 피부 단백질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 최고 품질인 벨루가 캐비아를 함유했으며 주름 개선, 보습, 탄력 등 97가지의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한 인증을 받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문의 080-000-8000

샤넬 크리스마스 메이크업 컬렉션 샤넬의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 필립스는 크리스마스 메이크업 컬렉션 '에끌라 두 수와 드 샤넬'을 완성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눈매를 완성해주는 아이섀도 팔레트를 비롯해 볼에 생기를 더해줄 블러셔, 발색력이 우수한 립스틱, 매혹적인 컬러의 네일 래커 등 풍성하게 구성했다. 문의 080-332-2700

아모레퍼시픽 신민아 예코 백 아모레퍼시픽이 배우 신민아와 함께 예코 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 뷰티 포인트 9천9백 점으로 신민아가 직접 디자인한 예코 백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신민아 예코 백은 실용적이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며, 방수 기능과 함께 20kg까지 제품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내구성도 뛰어나다. 전국 이리따움, 백화점 매장에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709-3634



오메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스카이 폴) 리미티드 에디션 오메가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 7번째 참여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스카이 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다이버를 위해 물속 활동에 최적화되어 단방향 회전 bezel과 헬륨 방출 밸브, 6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로터에 새겨진 스카이 폴 007 로고와 8507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문의 02-511-5797

반클리프 아펠 피에르 아펠 프레스 프리뷰 반클리프 아펠은 1949년 제작한 매종의 상징적인 워치 PA49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피에르 아펠 컬렉션'의 프레스 프리뷰를 진행했다. 피에르 아펠의 디자인으로서의 업적, 대담한 모험심, 열정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담은 3가지 콘셉트 룬으로 구성했다. 피에르 아펠 워치는 오리지널 모델과 같이 화이트 래커 다이얼로 선보이며, 다이얼 중앙에는 매종의 홀마크와 남성의 드레스 셔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벌집 모양 패턴으로 장식해 클래식한 멋을 드러낸다. 문의 02-3440-5660

까르띠에 롱드 솔로 XL 오토매틱 워치 까르띠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래식 모델이자 베스트셀러 워치 중 하나인 롱드 솔로의 새로운 버전, '롱드 솔로 XL 오토매틱'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까르띠에 고유의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로마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시간이 두 번 표시되어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문의 1566-7277

스와로브스키 키 컬렉션 탄생 스위로브스키에서 '키(Key)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티스트 오노 요코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이번 컬렉션은 독창적인 크리스탈 컷을 열쇠 모티브의 참에 적용해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11월 7일부터 대림 미술관에서 열리는 '스와로브스키 스피클링 시크릿'



오메가

반클리프 아펠

전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했다. 문의 02-3395-9096

미도 멀티포트 파워 리저브 미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멀티포트 파워 리저브'는 자동차 계기판을 연상케 하는 반원 형태의 인디케이터와 충격을 완화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으로 견고함을 강조했다. 블랙 레더 스트랩에 인디케이터와 동일한 레드 컬러 스티치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고무 스트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문의 02-3149-9599

불가리 2012 앤틱 비엔날레 불가리는 파리 그랑 팔레에서 개최한 앤틱 비엔날레에서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섬세한 세공 기법을 엿볼 수 있는 1백 피스의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165.8캐럿의 딥 블루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핑크 루벨라이트, 만다린 가닛, 에메랄드를 세팅한 네크리스와 화려한 유색 스톤의 향연을 보여준 메디테라니 에덴, 에메랄드 비즈와 타거석, 무수히 많은 다이아몬드를 번갈아 세팅해 극도의 화려함을 보여준 새로운 세르펜티 컬렉션 등을 선보였다. 문의 02-2056-0172



스와로브스키

까르띠에

불가리

JEWEL

OMEGA

SKYFALL

007 스카이폴
10월 26일 개봉

JAMES BOND'S CHOICE.



www.omegawatches.com

Skyfall © 2012 Danjaq, United Artists, CPH: Skyfall, 007 Gun Logo and related James Bond Trademarks, TM Danjaq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Ω
OMEGA